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20 1981년9월16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September 16,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ARIO, CANADA M5S 1A5
SEP 21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세계로 번지는 팍스정신

"회망의 마라톤"에 수십만명 참가

암퇴치기금 $400만 모금될듯

◇악성종환을 무릅쓰고 달리는 생전의 테리·팍스군

캐나다의 영웅 "테리·팍스"를 추모하는 「테리·팍스 마라톤」이 캐나다인을 비롯 수십만의 세계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지난 일요일(13일) 제1차 마라톤이시작됐다. 지난 6월 암으로 생명을 잃은 테리·팍스의 「희망의 마라톤」을 계속하고, 그의 소원이던 암퇴치기금 모금을 위한 마라톤은 캐나다에서만 800여곳에서 벌어졌고, 중공에서부터 중동의 여러 나라까지 참가했다. 캐나다에서 이 마라톤을 주최한 캐나다육상협회의 몬로씨는 14일 10㎞ 「테리·팍스 마라톤」에 40만 캐나다 시민들이 참가했다면서 목포액 400만달러는 무난한 달성되리라 내다봤다.

B.C.주 코퀴트람 출신의 이 젊은 영웅 팍스는 암퇴치기금을 위해 지금까지 근 2,400만달러를 모금했고, 그가 작년에 이 목적으로 「회망의 마라톤」을 시작, 암의 악화로 썬더베이에서 쓰러졌을 때는 온 캐나다인의 마음속에 꿈과 회망의 용기를 돋아주었다.

팍스군은 생전에 자기자신 혼자서는 이 「회망의 마라톤」의 목적을 다할 수 없다고 안타까와했다.

「회망의 마라톤」을 이어받은 수만의 마라토너중에는 휠체어를 탄 불구자도 있고, 어린 소년에서 노인들까지 「테리팍스암퇴치기금」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북경에서 캐나다대사 관무관 존·휴톤 중령의 아들 제프리(10세)군은 이번 마라톤에서 780달러를 모금했다.

제프리군은 아침 6시에 기상, 대사관 직원숙소에서 대사관까지 왕복 10㎞를 달렸다. 이 소년 옆에는 아버지 휴톤 중령과 중국인 노동자 강왕재씨가 뒤따랐다.

중공의 최대신문<인민일보>는 일찌기 테리·팍스의 영웅성을 찬양하는 특집기사를 실었다(본보 7월24일자).

동경, 앙카라등지의 캐나다 무관들이 이날 일제히 이 마라톤에 참가했다.

캐나다국방성의 한 관리는 세계 10개국에서 약 천여명의 캐나다군인들이 이 마라톤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암협회 리·롤맨회장은 토론토에서 마라톤을 마치고 "캐나다인들이 자랑스럽다"면서 길거리에 나와있던 시민들은 이 마라톤에 참가할 것과 사업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오타와에서는 제랄드·리간 체육성장관도 마라톤을 뛰면서 "많은 후원자들이 이 「테리·팍스 마라톤」을 연례사업으로 벌이지고자했다"고 전했다.

◇외다리의 불구자 리차드·트람씨가 친구 로슨씨(오른쪽)와 같이 「테리·팍스 마라톤」에 참가하고 있다. 토론토에서만 약6천명이 참가했다.

3한국인 학자에 영광

최우수논문상 받아

3명의 한국인 농경제학자들이 캐나다와 미국에서 최우수논문상을 받아 북미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8월 온타리오주 세인트·캐더린 소재 브록(Brock)대학교에서 열린 81년도 캐나다 농업경제학회는 80년도에 발표된 농경제분야 논문중 사스카치완주 르자이너 대학의 권오율 박사와 연방정부 교통통제부 수석경제연구관 엄인호씨가 공동작성한 논문 「주별로 본 평지씨(Rapeseed)의 공급 모델과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를 최우수논문으로 선정했다.

캐나다농경제학회가 매년 수십편의 논문중 선정, 시상하는 최우수논문상을 한국인 학자들이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의 구원회 박사(농경제학 부교수)는 7월에 열린 81년도 미국 농업경제학회에서 다른 2명의 미국학자와 함께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3학자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권오율 박사

◇엄인호씨

◇구원회 박사

◇권오율 박사(45세)

학 력 :

1962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

64년 캐나다유학

68년 맥마스터 대학교경제학 석사학위

72년 동대학교서 박사학위

경 력 :

1971—75 캐나다 연방정부 재무성 수석 조세정책관 역임.

75—81 르자이너 대학교 행정대학 부교수

81—현재 르자이너 대학교 교수, 사스카치 완주 증권관리소 이사

연구분야 : 조세정책, 자원개발정책, 농업경제정책

◇엄인호씨(43세)

학 력 :

1961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경제과 졸업

67년 캐나다 이민

70년 유대학교 경제학석사 학위

73년 칼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과정 수료

경 력 :

1972—75 캐나다 연방정부 농무성 경제 연구관 역임

75—현재 캐나다 연방정부 교통통제부 수석경제연구관

연구분야 : 교통경제정책, 농업경제정책, 산업구조와 경제정책

◇구원회 박사(40세)

학 력 :

1964년 전북대학교 상과대학경제과졸업

68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

70년 미국유학

74년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학위

경 력 :

1975—79 몬타나 주립대학교 조교수

79—81 몬타나 주립대학교 부교수

81—현재 노스· 다코타 주립대학교 부교수

연구분야 : 계량경제학, 마켓팅, 국제무역및 교통통재

북한 국제신용도 떨어져

차관상환 불이행으로

(뉴욕11일=연합)70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둔화된 북한은 요즈음 서방국가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으나 부채상환불이행 등으로 국제신용도가 낮아져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 11일"주간경영"(The Business Week)잡지가 최근호에서 밝혔다.

폴랜드와 같이 급속한성장을 추구하려던 70년대초반부터 북한은 어려움을겪었다고 말하는 동잡지는북한은 지금도 서방은행과정부에 차관으로인한 13억달러의 부채를 안고있고, 동구 여러나라에서도 그에상당한 부채를 지고있다고밝혔다.

동잡지는 국제 경제전문가의 말을 인용, "북한의73년 석유파동 이후의 차관상환불이행은 상환변경계획이라기 보다 무분별한불이행이다"라고 말했다.

동 잡지는 북한은 일본에게 만은 차관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일본과의무역을 재개하기 위한 포석때문이라고 밝혔다.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은 한때 북한이 생산하는 주석, 납, 마그네슘, 비단원료등의 천연자원과 수산물에 중점을두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열망했었다.

또한 서방국가들은 71~72년의 남북한 협상으로인한 화해무드에 고무, 71~74년동안 대북한 무역수입을 11배나 증가시켰다.

그러나 73년 석유파동이후 비철강 금속의 수요감소로 가격이 떨어지고 74년이후 북한의 외채상환능력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김환진, 로페즈와 방어전

김용현과의 대전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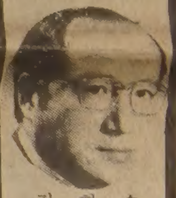
(서울12일=연합)세계권투협회(WBA)쥬니어 플라이급 챔피온 한국의 김환진 선수는 10월11일 충남대전에서 파나마의 알폰소 로페즈선수와 타이틀 방어전을 갖는다.

11일(금)김의 매니저 김호연씨는 당초 계획했던김용현 선수와의 타이틀전은 취소됐다고 말했다.

챔피온 김환진 선수는지난7월 대구에서 멕시코의 페드로 프로레스를 꺾고왕좌를 차지했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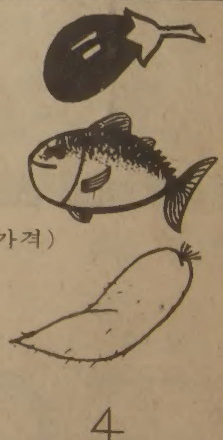
강 학 수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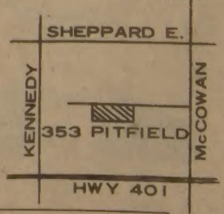
서울식품 'BIG SALE"

한국·미국으로부터 대량직수입 SPECIAL!! 세일기간 9월8일(수)부터…

		REG.	SPECIAL
●불고기등심	Lb.	2.59	2.20(10파운드제한)
●갈 비	Lb.	1.69	1.29(박스제한없음)
●소꼬리	Lb.	1.35	1.09
●참기름깡통(일본제품)		10.90	9.50
●한국농장용 배 추, 무, 풋고추		} 농장가격으로 그냥 서비스	
●명간장	1 gal		6.90
●양잠피	1 kg	2.25	1.80
●삼양라면	1 박스(50개)당15봉지 Free		
●삼양냉면	1 박스 5인용	24.00	19.00(1 박스제한)
●청수냉면	1 박스 2인용	24.00	19.00(1 박스제한)

		REG.	SPECIAL
●오징어젖	Lb.		80¢(특별가격)
●한국고추가루	Lb.	3.50	2.90
●어리굴젖	Lb.	4.90	2.90
●각종선물용상품(gift) —20% 디스카운트			
● 쌀 : 미국에서 도착즉시 추가 세일할 것임			
●삿보로라면		13.90	11.50
●산요보온밥통		128.00(특별가격)	





주소 : 353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울식품, 서울식품, 서울식품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이민사 편찬·강연회

한인총연합회 다각적 행사계획

「한인의 날」행사는 지역별로

◇오기송 연합회장

짐·프레밍 복합문화성차관은 오기송 캐나다한인총연합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종문제에 대한 전국 심포지엄 개최를위해 연합회가 협조해줄것을 요망했다.

오회장이 최근 밝힌바에 의하면 프레밍장관은 정부기관, 인권옹호위원회, 법률가및 인종문제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심포지엄을 계획, 이에대한 준비로 캐나다와 미국등 다른나라의 인종문제에 대한 준비로 캐나다와 미국등 다른나라의 인종문제에 대한 자료수집, 극우분자 조직의 재출현등을 분석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종문제 계몽을 위해 신문, TV, 래디오, 잡지등 간행물로 이용하고각 사회, 교육, 종교기관등이개최하는 세미나, 강연회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150만달러 증액, 보조한다.

연합회는 이 문제에관한 교민들의 적극 참여를 요망하고, 관심있는 교포들이 연합회에 연락해·주기를당부했다.

한편 연합회는 금년도 「한인의날」을 행사없이 지내기로 했다. 연합회는 첫 「한인의 날」인 10월3일이 시일이 촉박, 전국적 종합행사는 내년으로 미루고금년에는 각지방 한인회가지역적 행사를 갖도록 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2년간 9,600달러의 예산을 확장, 이민사 편찬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위니펙의 김원경박사를 강사로초빙, 한인자녀교육 심포지엄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연합회가 지역별안배로 확정한 24명의 이사는 아래와 같다.

이사장 : 강신봉
부이사장 : 김원경
이사 : 강우석, 권병현, 이청강, 이유식, 이희재, 박영효, 심재환, 오기송, 황대연, 원영수, 양혜신, 이영일, 김처중, 정영섭, 권오율, 김진헌, 구상회, 유재신, 전택균, 조한철, 김명규, 정종식,

〈연합회 연락처〉
5525 Silverson Ave·Montreal P−Q·H4V 2G6
전화 : 514−489−8753

슈가레이·헌스 대결

WBC, WBA웰터급 통합전

금세기의 대전이라고 불리우는 세계 웰터급 권투챔피언쉽 쟁탈전이 16일(수) 라스베가스의 시저스·팔레스에서 열린다.

WBC챔피온 슈가레이·레오나드와 WBA 챔피온 토미·헌스의 대전은 두명왕좌를 인정하지 않는 승부세계의 냉혹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많은 권투팬들을 흥분시킨 이번 경기는 세계적인 경기인만큼 대전료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슈가레이·레오나드는이번 경기의 대전료로 천만달러, 토미·헌스는 그 절반인 5백만달러의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된다.

슈가레이·레오나드는로베르토·듀란과의 경기로 많은 권투팬들에게 알려진 선수이다.

80년 뉴우·올리 앤스에서 열린 듀란과의 3차전 경기에서 듀란의 기권으로 타이틀을 재탈환한 슈가레이는 그 이후 계속 왕좌를 지켜오고 있다.

'작은 알리'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입심이 좋고 자화자찬을 즐겨하며 예쁘장한 얼굴을 가진 슈가레이는 희극적인 매너로 관중을 매료하고있다.

한편 토미·헌스는 디트로이트 빈민가 출신으로「코브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슈가레이보다 3인치나더 큰 신장(6'1")과 4인치 더 긴(76")팔을 가진 토미·헌스는 나이도 슈가레이보다 3살아래인 22살로 신체적 조건은 슈가레이보다 유리하다.

양쪽진영은 모두 이번 시합이 10회를 넘기지 않고 K.O. 승으로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대부분의 권투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는 예측을 불허하는 시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컴퓨터로 측정한 바에 의하면 토미·헌스가 우세하다.

토론토에서는 메이플·리프·가든에서 16일하오 8시45분 대형TV로 중계한다.

입장료는 좌석에 따라 25달러 20달러, 15달러 이다.

한인신용조합 정관개정

대출한도액 늘여

11일(금)한인신용조합은 대출한도액 증가등 정관개정을위한 임시총회를 한인회관에서 가졌다.

성원의 부족으로 하오7시로 예정되었던 회의는 1시간 30분이 늦어진 8시30분에 한상훈 조합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윤호영 총무이사의 정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은다음 이홍렬 전무이사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어 정관개정에 대한투표결과 회원 20명의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1인당 대출액이 증가, 당조합채권 보전책으로 부동산 담보가 요청되어 이에 관련된 정관개정이 요청됐었다.

이번 개정된 정관개정을 보면(1)무담보 대출 한도액은 현행 500달러에서 천달러, (2)담보대출 한도액은 3천달러에서 만달러로, (3)부동산 안보대출 한도액은 만5천달러에서 5만달러, (4)1인당 대출최고한도액은 2만달러(또는 총자산의 5%로하되 적은 금액으로 한정)에서 6만달러로 변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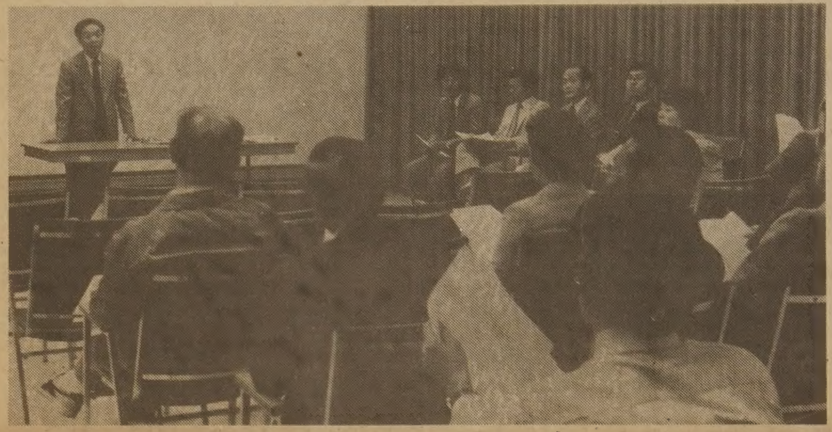
총자산 140만달러와 조합원 천명을 달성한 당 조합은 전년도 총자산 76만달러와 조합원 600명보다 근 2배의 성장을 보였다.

당조합은 이를 기념하여 신용적금, 어린이적금, 성장저축등 신종저축 제도를마련하고 장기적 적금도입에 역점을 두고있다.

점차 늘어나는 예금증가에 대비, 오는 10월 외환은행과의 경쟁가능성을 질문받은 한상훈 조합장은 외환은행은 자원투자, 달러화보등 일반 시중은행과같은 Wholesale Bank로서 구조상 신용조합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사항도다르다고 말하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낙관했다.

신용조합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예금이자는 높고대부이자는 낮은 이점이 있다.

외환은행도 신용조합의 신용적금과 같은 장미적금제도를 마련하고 고객을끌고있어 앞으로 두 금융기관의 경쟁이 주목된다.


◇한인신용조합 정관개정 임시총회에서 사회를 보는 한상훈 조합장. 그 옆줄 앞으로부터 윤호영 총무이사, 김하량 부이사장, 이홍렬 전무이사, 김장환 이사.

◇U.S. 오픈 승리후 환호하는 맥켄로 ;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원내는 여자부 우승의 트레이시·오스틴

매켄로 U.S. 오픈 3연패

오스틴 여자우승

(뉴욕)「테니스의 냉전시대」는 끝이 났다. 13일 개최된 U.S. 오픈 남자개인 결승에서 존·맥켄로는 세트스코아 3:1로 비온··보그를 물리침으로 세계정상의 자리를 재확인했다.

지난 7월4일 두 선수가 웸블던 결승에서 만나 맥켄로가 3:1로 이겼을 때만도 맥켄로의 시대가 왔다고 믿지는 않았었다. 백만장자이며 근 10년 테니스의 왕자를 지켜왔던 스웨덴 출신의 비온·보그를세계왕좌에서 물러났다고 생각지 않았다.

이제는 보그가 그의 강한 의지력을 되살려 매켄로의 왕좌자리에 도전하는 길만 남았다.

이날 루이스·암스트롱스타디엄에서 개최된 결승에서 첫세트를 4:6으로 잃은 매켄로는 6:2, 6:4로 쉽게 2개 세트를 땄다.

크라이막스는 4세트 6번째 게임.

보그는 게임스코아 3:2로 리드당한채 역전시킬 수 있는 자기 서브차례를 맞았으나 4개 실수를 연달아 범해 서브게임을 잃고 4:2로 밀려났다. 그후 이 세트를 6:3으로 잃어 왕자를 매켄로에 주어 3연패의 쓴잔을 마셨다.

경기 시작전에는 전날(12일) 비타스·제루 라이투스와 3:2의 시이소를 벌인 매켄로보다 지미·코너스를 3:0으로 섯아웃시킨 보그가 유리하다고 전망됐었다.

게임후 매켄로는"아직도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을 못했다"면서 세계테니스 왕자자리를 지키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켄로는 우승 상금으로 66,000달러를 받았고, 보그는 33,000달러를 받았다.

한편 12일 벌어진 여자단식 결승에서는 세계최고의 여자 테니스 선수라 일컫는 체코 출신의 미국 망명선수 나바로틸로바가 캐나다오픈 우승자 오스틴에게 6:1, 5:7, 5:7로 역전패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U.S. 오픈에서 다시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다.

지난 7월에 미국시민권을 받은 나바로틸로바는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대회의 결승에 오르기까지 8년 걸렸다. 우승하려면또 8년"하면서 한숨 섞인 조크를 던졌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단편소설)

상주(喪主) ②

이태준(문협회원)

시집에서 쫓겨온후 그녀와의 관계가 서먹하던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하숙생이 하나만 하숙을 옮겨가도 그녀의 병탓으로 돌리고, 아주 쌀쌀맞게 대했다.

「집안에 미친년이 붙어있으니 누가 이집에서 하숙을 할려고 하겠어? 나만 같애도 옮겨가고 싶지.」

그러나 춘자의 실성기는 어머니의 말처럼 하숙생이 옮겨갈 정도로 심하거나남에게 피해를 줄만큼 심한 것은 아니었다. 흔히 빨래를 하다가 잘 나타나는 그녀의 발작은 잠싯동안 하늘을 멍청히 쳐다보다가뭐라고 알아들을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며 훌쩍훌쩍 우는것이 전부였다.

그런후 제정신이 돌면고개를 푹 숙이고 엄지 손가락으로 빨래판을 푸드득푸드득 문지르며 나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다 쏜살같이 자기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어휴! 내가 이 집구석을 나가든지, 춘자가 나가든지 해야지…」

성미가 괴팍스러운 나는 그녀가 발작을 끝내고나면 으레 이런 소리를 투덜거려 그녀를 더욱 곤란하게 해야 직성이 풀렸는데, 이상스럽게도 그녀는 나에게 지나치게 자상스럽고 희생적이었다.

내가 병이나서 드러눕기라도 하면 풀이죽은 얼굴로 밤잠을 설쳐가며 간호를 해주고, 손장난을 치다 어머니가 아끼던것을 깨뜨리기라도 하면 내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호된 곤욕을 치르면서도 끝내 나의 잘못을 숨겨주었다.

이상한 관계였다. 춘자가 귀찮고 못마땅하면서도무슨 계약에 얽매어 있는것처럼 마지못해 춘자를 데리고 있는것같은 어머니, 내가 자기를 싫어하는줄알면서도 어머니 이상으로나를 걱정해주는 춘자, 모두가 따로따로인것 같으면서도 풀리지않는 사슬에 얽매어 있는것처럼 이상한관계였다.

출생지도 다르고, 친혀인척관계도 아닌 하숙생들이 둘씩둘씩 짝을나누어 하숙생활을 해나가는 상태와잘 조화가 되는, 하숙집으로서는 더없이 적격인 관계였다.

하숙생들은 같이사는 동안은 집안식구처럼 정도들고 흉허물이 없다가도 일단 하숙을 옮겨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어머니와 나의관계가 바로·그런 깃같았다. 어머니는 내가없어도 대부분의과부가 독자를 잃으면 하늘이 무너진듯이 실망하고울듯이 그렇것 같지가 않았다. 나도 어머니가 갑자기 죽는다고해도 통곡을하며 울것 같지가 않았다.

평소의 생활이 그랬다. 어머니는 내가 심하게 앓고있어도 그러느냐는 정도였다. 나도 어머니가 며칠씩 집을비워도 허전하다거나, 어머니가 집에없다는사실을 절감하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 하숙생들처럼헤어져 버리면 그뿐일것 같은 메마른 관계였다.

예외라면 춘자가 나를대하는 태도였다. 그녀는 주제넘게 어머니의 사랑을대신 나에게 주려는것같이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러는 그녀가 더욱 싫었다. 발병을 하고난 후부터는 그녀와내가 한 집안에서 산다는사실이 역겨울 정도로 싫었다. 그래서 나는 될수있으면 그녀를보지 않으려고일부러 피해다녔다.

어쩌다가 맞부딪치기라도 하면 미안해하는 그녀의 태도를 무시해 버리고 구더기라도 본것처럼 침까지 뱉아가며「오늘재수는잡아보았군!」하고 경멸해버렸다.

남이보면 틀림없이 호로자식의 버릇없는 소행이었다. 그러면 그녀는 「나한테는 그래도 남에게는 절대 그러지 마라!」

밉살스럽도록 능청스러운 대꾸로 나를 다스리려했다.

나와 어머니의 시달림속에서도 그녀의 병세는 나아지고 있었다. 발작의 횟수가 뜸해지고, 노랗던 안색도 본색을 되찾았다.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 되었을때 그녀는 무슨마음을 먹었음인지 하숙생들의 어깨너머로 영어를 배우고 있었다.

할일없이 집안을 기웃거리다 그녀가 새까맣게 알파벳을 연습해논 노트를보고 온 뒤

「춘자는 대학교를 갈려고 영어를배워?」나와는상관도 없는일을 비비꼬아물었을때 그녀는 눈이부시도록 하얀 빨래를 앞마당의 빨래줄에 조심스럽게 널고 있었다.

「생전 말을걸지 않던애가 오늘은 무슨일이니?」

의외라는 표정으로 뒤를돌아보며 대꾸했을때 나는대답을 할수 없었다. 나는그녀가 영어공부를 하고있다는 사실을 하숙생들을 통해서 알고있을뿐만 아니라 그녀의말이 지극히 타당했기 때문이었다.

「너는 그런거 상관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는 제발 좋은 대학이나 들어가거라」

부모가 자식에게 타이르는말 같았다. 그러나 귀에 거슬리지는 않았다. 나의시선은 그녀의 관능적인 뒷모습을 훑어내리며 강한 본능을 느끼고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것 뿐이야」구차한 변명이었다.

「대학교 선생을 만날려면 영어를 알아야 하지야?」

내 어감이 누그러지자그녀는 이야기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는지 엉뚱한질문을 해왔다.

「어떤 놈팽이 교수가 춘자를 좋아하나 부지?」

본능의 욕구에서 서서히 풀려난 나의 말버릇은 예전으로 되돌아 왔다.

「너는 나이도 어린게 왜 삐뚤어 지기만 하니?」

「안 삐뚤어지게 생겼어. 어머니라는 사람은 골도구경하기 힘들지, 집안에는정신이 오락가락한 식모가골 갑을 하고있지, 안미친게다행이지, 춘자같이 말이야」

「그만두자 너하고는 말을 못하겠다.」

몇십년을 같이살면서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대화였다.

춘자는 내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입학 예시에 낙방하고 재수를 시작한 작년까지도 아무런 이상이없이 건강했다. 나와 어머니의 미움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녀는 밉살스럽도록 건강했다.

그런 그녀가 발작을 다시 시작한것은 올 초봄부터 였다.

그녀의 발작은 헛소리를 하는정도가 아니라, 아예죽은 것처럼 새파랗게 기절을 하거나 두 눈동자를 안쪽으로 모아가며 전신에경련을 일으키는 무서운 발작 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생전처음 목격하는 그녀의 대발작에 무척 당황하고 있었다. 그녀가 두렵고 무서워지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우물쭈물하며 불안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하숙생들의 불평소리도 들렸다.

「아무리 남의 식구라도 저렇게 심한 환자를 병원에는 데리고 가지도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나?」

「본가에 아직 연락도 안한 모양이여」

하나같이 당연한 불평이었다. 나의 생각도 같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불안에히우적 거리면서도 무슨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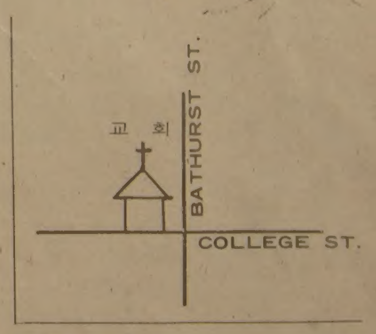
심령부흥회

강 사:최 헌 우 목사

약력소개 :
- 총회 신학대학연구원 졸업
- California신학원졸업(석사)
- Fuller신학교 박사코스연구중
- 서울원동교회 시무
- 현재 L.A.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담임(장년400명교인)

일 시 :
10월 1 일(목) 오후7시30분(저녁부흥회)
2 일(금)·오후7시30분(〃)
3 일(토) 〃 (〃)
4 일(주)오전5시30분(새벽기도)
오후1시 — (대예배)
오후7시30분(저녁부흥회)

중앙장로교회



전화연락 : 249−5461
961−8361
281−9991

담 임 : 정 관 일 목사

교회주소 : 502 BATHURST ST.
TORONTO, ONTARIO,
M5S 2P9 CANADA

함정搜査로 들어난「湖林莊」賣春사건

사우스웨스트警察 풍기단속반의 관련자 체포하기까지

正私服경찰 10名, 매춘혐의 잡고 잠복수사
“뭣좀 짜릿한것 없느냐….” 女從業員에 질문
홀뒷쪽에 베개와 담요깔린 칸막이 密室
하룻밤 花代 2백불…흥정 現場덮쳐 連行

지난 2일밤 늦게 LA 크렌셔 불러버드 3840번지에 있는 호림장 술집에 수염이 텁수룩한 청년을 비롯한 몇명의 미국인이 나타났다.

이들 노동자타입의 미국인들은 하루의 피로를 잊기위해 마지막으로 한잔 하려고 술집문을 두드린것 같이 보였다.

홀 안에는 어둠침침한 조명아래 여러개의 테이블이있었고 대부분의 테이블에는 술취한 손님들이 아가씨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다.

이들 미국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술을 마셨다.

그러나 이들은 비어나 와인을 마시지 않고 위스키와 같은 독주를 주문했다.

호림장은 원래「BEER 와 WINE」만 판매하도록 허가 받았으나 이들이「하드리커」를 주문하자 아무거리낌 없이 내주었다.

독주 몇잔을 사마신 이들 미국인들은 밤이 깊어가자 취하는듯 보였으며 그때부터 혀가 꼬부라지며 아가씨들에게 이말저말 건네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한 사나이가 종업원에게 이거 재미없는데 뭐 좀 짜릿한 것 없느냐고 물었다.

종업원은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이 미국인은 술마시고 아가씨와 이야기하는 것 말고 보다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재미있는것 없느냐고 물었다.

종업원은 그때야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고 저기 있는 저사람과 이야기 해야 한다며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후 나이가 지그시 든 사람이 왔으며 그때부터 매음에 관한 흥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하루밤에 2백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홀 뒷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됐다.

그방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고 담요와 베개가 있었고 그 옆방에는 소파까지 있었다.

이들 작은 방들은 마치 중국식당처럼 큰방을 칸막이로 적당히 막아 만든 방이다.

이 방에서는 파일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먹을수 있게 돼 있다.

잠시후 여자가 들어왔다.

서로 겉눈으로 인사를 하고부터 야릇해 지기 시작했다.

이때 갑자기 여러명의 정사복 경찰이 홀 안으로 들어왔다.

홀안에 있던 손님들은 무슨일인가 놀랬고 주인과 종업원은 어떻게 된 일인지 당황했다.

경찰은 홀에서 거래된 주류와 매음행위를 조사했다.

뒷방에 있던 미국인들과 여자들도 조사했다.

경찰은 주인 김동용씨를 매춘알선 및 주류판매법 위반으로, 장경숙여인을 매춘협의로, 그리고 종숙로벗슨여인을 주류판매 위반으로 연행했다.

이때가 밤 11시40분 께였다.

이로써 한인이 운영하는 한 술집의 불법 주류 판매와 매춘행위가 막을 내렸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호림장사건은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든 것이다.

술먹으러 들어간 미국인들은 사복경찰이었고 정복경찰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함정수사작전에 동원된 인원은 정사복경찰을 포함해서 10여명이나 됐다.

이 중에는 만약의 경우 남자경찰이 조사하지 못할 은밀한 것까지 조사하기 위해 여자경찰도 끼어있었다.

이들은 비퍼와 무전으로 연락하면서 함정수사를 성공리에 완수했다.

이 수사를 총지휘한 사우스웨스트 경찰서 쇼어즈수사관은 한인타운에 매춘행위가 있다는 정보를 3년전부터 입수, 조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이번 호림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차례 현장을 답사했다고 밝힌 쇼어즈수사관은 고객의 대부분이 중년의 동양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동양계이외에 미국인의 고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쇼어즈수사관은 한인타운에도 술집이 많은데 이곳에 오는 이유가 나변에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매춘이 성행한다는 정보에 따라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쇼어즈수사관이 밝힌 호림장의 불법행위는,

▲주류판매허가위반(ABC 규정위반) ▲매음행위 알선 및 ▲매음행위 장소제공이다.

한국방문 미국방성 차관

(와싱턴11일=연합)미국 프랭크·칼루치 국방차관은 한국정부 고위 관리들과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기위해 9월 한국을 방문한다고 11일 펜타곤이 발표했다.

칼루치 차관은 한국방문중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을위해 한국국방관계 요인들과 일련의 회담을할예정이다.

칼루치 차관은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의 참가, 휴전선을 방문할 예정이다.

「칼」차관은 한국 이외에도 필리핀, 타일랜드, 일본을 방문한다.

韓国産장난감 말썽

갖고놀던 강아지들 심한발작증세
아직原因不明, 연구소서 분석조사

[산호세] 한국에서 수입된 강아지들의 장난감이 강아지들을 자극 시켜 발광을하게 만들어 문제가 되고있다.

"Mister Max"의 상표로 시판되는 이장난감은 일종의 뼈다귀 대용으로강아지들이 물고 노는것인데 지난 수일동안 이를 갖고 놀던 강아지들이마치 마약에 취한듯 심한발작을 일으켜 수의사들의 치료를 받는다는 보고가 연발하고 있다.

산부르노 에서 수의업을 하고있는 제임스 바우어씨는 근래 약80건의 이러한 불평에 접했다고 말하면서 증세는 한결같이 미친듯 발작 하다가 약7일 이내에 조용해진다고 말했다.

장난감의 어떤 물질이 이와같이 만드는지 발견되지 않아 약물 치료를 현재 하고있지 못한다고 하는데 Mister Max의 각종 제품이 현재 UC데이비스 실험실 에서 분석되고 있는중 이라고말했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⑲

팔리·모왓 원작, 천재흔 옮김

각 텐트에서는 사냥꾼들이 뛰어나와 카약을 준비한다. 카약을 씌운 가죽이 찢어졌으면 여인들은 급히 새로운 가죽을 풀칠을해서 다시 꿰매어 놓는다.

사슴이 녹기시작한 강물로 뛰어들어 건너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사냥을하러 나간다. 각자는 창을들고 카약으로 아직도 얼음으로 가득차있는 강과 호수로 뛰어나간다. 여인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돌로 비석을 세워놓고 강변으로 나가서 사슴을 사냥꾼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유인하기위해 손질을 해놓는다. 이 비석은 여인들이 맡아서겨울의 거센바람에 무너져흩어진것을 원상복구를 해놓는다. 돌비석은 사슴이 볼때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 사슴을 몰기위한 담이 준비가되면 여인들과 아이들은 질척거리는 봄눈이아직도 깔려있는 벌판으로 나간다.

그들은 사슴이 도착할때까지 바위와 이끼사이에숨어서 기다린다. 사슴이 지나가게 되면 숨어있던 사람들은 발을 구르면서 소리를질러 사슴을 놀라게하여 돌담으로 몰아넣는다. 사슴은 좁은돌담 사이에끼어서 강언덕까지 오게되어, 사냥꾼들의 손에 맡겨진다.

사슴이 물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하면 카약이 달려들어 봄사냥이 시작된다. 창이 햇볕에 번쩍일때 마다 죽은사슴이 물위에 떠서 밑쪽에있는 만쪽으로 떠내려간다. 많은 사슴이 잡히지만 가을까지 저장할만큼만 사냥한다.

봄에 잡히는 것들은 가죽을 옷감으로 쓸수없고살이 빠져서 기름도 충분하지 못하다. 온 겨울동안 말린고기나얼은 고기만 먹었기 때문에 봄철에는 생고기를 많이먹는다.

호수밑에서 노인들이 떠내려오는 사슴을 물밖으로 끌어올리면 여인들은 바짝날이선 구부러진 칼을 들고와서 그자리에서 사슴을 잡는다. 그리고 신선한 고기와 골수가든 뼈를 한다발씩 짊어지고 허리를 절반씩이나 꾸부리며 캠프로 돌아온다.

모든 사슴을 한꺼번에잡는것이 아니고 대부분은내장만 빼고는 여름이 끝날 무렵까지 무거운 돌을 매달아 호수의 찬물에 깊숙히 넣어둔다.

사슴떼가 북쪽으로 모두 이동해 가고나면 캠프를산꼭대기로 옮겨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파리떼를 피한다. 여기서 사람들은 한여름을 보내고 사슴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여름에는 새새끼와 새알이 많아서 어린아이들까지 고무총과 활을가지고 매일 들판에나가 뇌조, 도요새, 물오리또는 바렌의 작은 들새들의 알을줍고 새끼를 잡아온다.

어른들 역시 가만히 앉아만 있지않고 북극의여우집을 습격해서 그 가죽으로 방석이나 파카의깃을 만든다. 그러나 여름동안 남자들은 대부분이 새카약을 만들고 썰매를 보수한다거나 하면서 사슴떼가내려오기를 기다린다. 저녁이 되면 산꼭대기로 올라가북극의 반짝이는 별들을 쳐다보며 사슴이 움직이기시작했는지 점 쳐 본다.

한여름이 되면 첫번째의 암사슴떼가 이 사람들이살고 있는곳을 지나간다. 그 후 한달동안은 들판에서사냥을 하게된다.

(계속)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시카고영어연구원에 찾아오는 교민들은 필자와 꼭 한번씩은 Interview를 하게된다。가장 빈번히 물어보는 표현중에 하나가 What do you do for a living?「직업이 무엇인가요?」그러면 열이면 아홉분은 I live ~「~ 에 산다」고대답을한다。

아마 서먹서먹한 표현이기 때문이리라。그러나 미국인들은 역시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직업을 묻는경우 What is your occupation? What is your job? 등 표현이 많이있다。

서울 미대사관에서 영사가 인터뷰를 하는동안 What are you doing?「직업이 무엇인가요?」물으니까 I'm interviewing.「지금인터뷰하고있죠」해서 웃겼다는 일화도있다。

A:What do you do for a living?
B:I'm with Sears, Roebuck and Co.
A:What position do hold?
B:I'm in charge of the sales department.
A:Do you live close to your work?
B:Yes, it's only a block from my home to my work.
A:직업이 무엇인가요?
B:씨어스에서 근무하고있읍니다。
A:무슨 자리인가요?
B:판매부를 책임맡고 있읍니다。
A:댁이 직장과 가까운가요?
B:예, 한블럭밖에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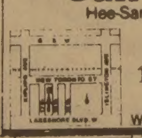
※in charge of : ~을 담당하다
어디에 근무하고 있다고 할때에 I am with혹은 I work at(for) I am employed at 등을 사용한다。
department:부。 단어중간에 있는 t를 파열시킬 필요없이【디팔먼】으로 발음한다。

본 칼람 담당자의「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 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캐너더·뉴스, 미국전역의 한국일보, 한국의 일간스포츠에 연재되고 한국의 MBC 문화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책의 내용을 전부 녹음한 카세트에는「특수발음교정법」이 한국말및 영어로 수록되어있음. 또한 한국및 미주사상최초로 제작된「영어회화 비디오」는 미국현지 생활 현장을 촬영하였으며 생활영어와 발음교정에 중점을 두어 편집되었음.

구입처:
B.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312) 966-4050
책: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1권용(33불)2권용(38불)3권용(38불)
비디오: BETA(6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민병철생활영어 1·2·3권
책、카세트、비디오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미국 이민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 이민쿼터제
- 노동허가법
- 학생비자발급
- 그외의 문제등, 또한 지금 어떠한 종류등 이민수속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분

위와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화나 편지를 주시면 뉴욕에서 다년간 이민법에 종사하신 미국인 변호사 ROGER C. ALGASE(알게이즈 씨)께서 좋은 이기성고, 자세히 성의껏 답해 드립니다.
사무실엔 항상 한국인 보조원이 계시어 불편없이 도와드립니다.

연락번호 (212) 762-5100
연락주소 136-31 ROOSEVELT AVE. Suite #2
FLUSHING, N. Y. 11354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구 HIT도매상)
“소문없이 싸게파는 도매상”

Special Sale ; Sept. 8 - Sept. 19

Pamper Toodler		53.00	51.79
Day time (EX)		42.50	40.50
Delsey	24/4's	38.30	32.95
White Swan	24/4'S	35.10	32.70
Royal Paper Towel	18/2S	27.55	22.70
Hi-Dry Towel	18/2'S	20.00	18.50
Scott Towel	18/2'S	26.65	22.80
Wet Ones	12/70'S	21.80	18.00
Chips Ahoy	12/150'G	18.35	17.50
Fruit Tella Candy	36'S	5.95	4.99
Mento's Candy	24'S	4.35	3.49
Scope	12/175m	13.75	12.60
Crest (mint)	100ml	34.00	27.89
Hershey Choco Syrup	12/10oz	8.95	9.40

한인연합상사
251-6578
U.K.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ONTO M8Z 5H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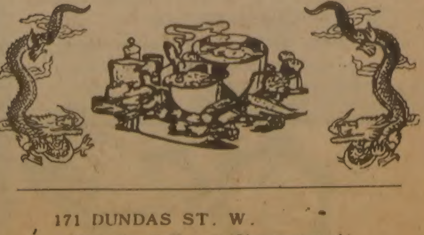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 - 4 AM
토~일 :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977-9734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 다운타운 밀크스토어
워싱톤과 새인크레어
☎ : 656-3020, 960-0761

DRESS MAKER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368-2819 미스터 원

가게 헬퍼구함 : 풀타임(유경험자)및 주말에 일할분
돈밀 로드와 쉐퍼드지역(오후6시 이전 연락바람)
☎ : 491-9701

주중이나 주말에 스토아에서 파타임으로 일할
헬퍼구함(여학생). 주말에는 풀타임 가능함
☎ : 463-6334 QUEEN E. 지역

도나스가게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헬퍼하실분
주중 : 오후3시~9시, 주말 : 오전8시~오후6시
영 스트릿과 칼리지 사이
598-1140

웨이트레스 구함 :
풀타임과 주말 파타임
☎ : 757-6334

40대 전후한 여자분으로써 가게에서 뒷일
보아주실분 구함(힘든일 없음). 지하철 근처
☎ : 489-1650 3시~10시

애기와 살림해주실분 구함
☎ : 244-7303
663-1053

주방헬퍼2명, 웨이터1명 웨이트레스 1명 구함
☎ : 536-0290
한 국 관

도나스샾에서 일할 여자분
풀타임 : 월~금(3~11PM), 파타임 : 토요일(3~11PM)
☎ : 482-4088

캐 비 넽 MAKER
FINE CUSTOM WOOD WORK.
GOOD PAY, BENEFIT
☎ 742-7725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주3일
☎ : 244-5246, MRS. THOMAIDIS

베이비 시터 구함 :
입주자 우대함
☎763-7450 미세스. 김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경험있는 가게헬퍼 구함 :
월급 : $1140
☎ : 923-3574

가게에서 풀타임 또는 파타임으로 일하실분
남자분을 원합니다.
☎ : 248-6555

"급 구"
TURTLE MOTHER OF PEARL INC.
●나전기사 1명
●나전칠기사 1명
●최소5년 경력을 가진 분에 한함
☎ : 535-2143

MICHI(미찌) 일본식당
요리사 또는 부엌일 하실분 급구 합니다.
CALL : 매니저 · 924-7501
주소 : 459 CHURCH STREET.

GAS ATTENDANT :
☎ : 782-6311

가게일 도우실 젊은 남자분 :
주6일 근무(월, 수, 목, 금, 토, 일)
Long Hours (AM9시30분~10 : 30PM)
주급 : 380달러(STARTING PAY)
☎ : 532-2961

스토아 파타임헬퍼구함(남자분)
스카보로지역
☎ : 267-0847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매및 양도

바쁜 프라자내 CONVENIENCE스토아 : 주매상 : $6300
보증, 리스 : 5년, 아스킹 : $59,000, 이상적인 패밀리 Operation
☎ : 766-9968 3437 st.Clair Av.E.와 Birchmount
HELLENIC REALTY LTD. REALTOR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6107 YONGE ST.
☎ : 223-7278 JOHN.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좋은지역에 위치한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사실 절호의
기회, 6년계약 싼 렌트. 아파트살림집 포함.
☎ : 654-4410, 635-8405 MR. 리타 리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 535-2804 미세스 김

성업중인 픽 · 업 세탁소 팝니다 :
2687 EGLINTON AVE. W. (KEELE근처)
☎ : 656-4727

코너 스토아(우체국포함)매매 :
아스킹 15,000+스탁(영×써머 · 힐)
1272 YONGE ST. MR. INGHAM

벡커스토아 매매
오후 6시30분이후, 아침10~12시 연락바람
☎ : 439-3044

COUNTRY STYLE 도나스샾 매매
이주관계로 급매코자함. A급 프라자내
주매상 5천5백~6천.
꼭 사실분만 내방바람(오전7시~정오)
8141 Yonge St. THORNHILL

급 매
타사업 관계로 급히 매도코자 함. 관심있는 분의
직접 내방바람.
357 COXWELL AVE. TOR. ONT.

스토아 매매 :
건물달린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 1-387-3983 해밀톤 미스타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5200+ 로타리오
수입으로 렌트 충당함 호조건으로 양도코자 함
주소 : 3240 EGLINTON. E.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중)
☎ : 781-7305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스토아 급매 : 2층집 달린 가게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 : 766-9491

시간 짧은 MALL안에 있는 스모크 샾
주매상 : 3천5백달러,
PICK UP드라이크리닝 : 주매상 1500달러,
드라이브 인 햄버거 플레스 : 주매상 6000달러
장래성 있는 빽커리 도나스 가게
☎ : 741-9170, A. E. LEPAGE LTD. MRS. WOO

매 매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소 : 3325 BLOOR ST. W. 직접 내방요함.

DOWNTOWN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FAST FOOD STORE임
주6일 영업, 주매상 $2000 아스킹 $33000
☎ 536 0463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여권 분실

분실공고 : 여권을 분실하였기 공고함
1619 ANWORLD COURT. MISSI. ONT.
☎ : 531-3491 이 홍 범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 김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스타미용실 미세스 · 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헬렌 미용실 미세스 ·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 · 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 : 651-9324(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용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9시~9시(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 · 신경과 · 부인과 · 침구과 · 산후보약(왕진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 · 카텐

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식 당

DR. KIMS RESTAURANT
4852 YONGE ST. WILLOWDALE.
☎ 221-1507 / 224-1060

집 · 방세 · 하숙

2층집 독채 : 3 베드룸, 2 목욕실, 차고.
10월1일 입주가능 월650달러
☎ 465-6067 제인과 쎄인 크레어

악기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
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에어콘 · 히팅 · 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 · 이인식)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시설 판매수리 :
에어콘, 전기, 개스, 워킹쿨러, 후리저
☎ : 746-3840(B), 493-9945(R)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 · 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상하수도 수리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국일보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토요일에도 광고 접수합니다.

한국일보
대표전화 ☎ : 533-2361

모든 기사는 취재부, 광고는 광고부, 구독 · 주소변경 독자부, 구독료 경리부, 발송사고 발송부, 식자문의 식자부 로 … 문의 요망

對日관계 硬化위기

北傀、우리哨所에 銃擊

10일하오6시 楊口北쪽서

10여分계속 我軍도 應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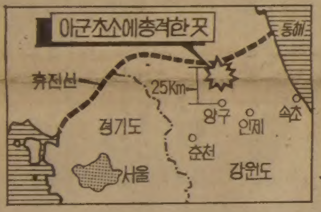
對南비방放送 중지촉구에

國防部발표 我軍피해없어

국방부는 11일 北傀가 10일 동부전선 楊口북방25㎞지점에 있는 자기네 GP에서 아군초소를 향해 10여분간에 걸쳐 수십발의 무차별 기관총사격을 가해 왔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10일 하오6시께 적GP를향해 육성으로 北傀의 대남확성기 비방방송의중지를 촉구하고 있을 때 北傀가 아군초소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해 왔고 아군측도 자위를 위해 즉각 응사했으며 아군의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대변인은 이같은 휴전선에서의 총격은 올들어5번이나 있었다고 밝히고 이같은 북괴의 행위는 진일보한 긴장고조행위라고 지적, 앞으로 이러한 도발행위를재개할경우 단호히 응징할것이며 모든책임은 북괴측에있음을 경고하는한편 이러한행위를 과거와같이 우리측에 덮어씌우는 상투적인 생떼를쓰지말고 평화적대화의 광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日代表團 어제離韓

소노다외상을 비롯한 韓日閣僚회담에 참석했던 日本側 대표단은 이날하오6시 JAL특별전세기편으로 귀국했다。

"韓·日 새次元協力절실

한地域 主導權장악 위험한思考"

全대통령、日代表와 1시간50분 午餐

全斗煥 대통령은 11일상오 소노다(園田直)외상등 韓日閣僚회의에 참석한 일본측대표6명을 접견한뒤 午餐을함께하며 80년대의 국제정세와 양국간의 새로운 협력관계정립문제등에 관해 의견을교환했다。(사진)

全대통령은 이날 1시간50분간의 오찬을 포함, 2시간20분간에 걸쳐 의견을 나누는가운데 과거의 韓日양국관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력관계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양국관계는 새차원의 협력관계로 이끌어 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韓日양국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만 집착할것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의 양국관계발전을위해 노력하는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두나라는 理性과 인내를가지고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 좋은 성과를 거두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까운나라』라고 지적하고 『韓日 두나라지도층은 젊은세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양국이 信義를 바탕으로 진정한 友好善隣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80년대는 특히 국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더욱 증대돼가는시대로 한나라에 의한 全體의지배나 어느지역의 主導權장악은 불가능하며 또 그러한것은 위험한 思考』라고 지적하고『80년대는 다시말해 모든나라간의 균형있는 발전이 추구돼야 하는年代』라고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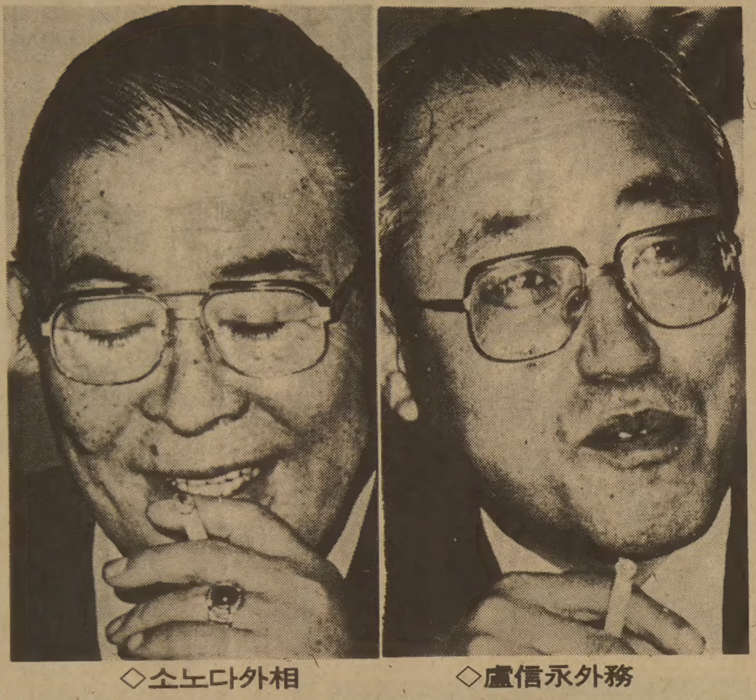
이에대해 소노다외상등 일본측 閣僚들은 양국간의 특별한관계에따라 이번 각료회의에서도 의견일치를 본것과 못본것이있다고 밝히면서『이러한문제에 대해서는 성의있는노력을 계속해 좋은대화로써 理解와문제해결을 촉진해 가야하며 또 해결되지 않는 모든문제들은 앞으로 양국간의 頂上회담도있는만큼 순차적으로 해결돼갈것으로 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이들 각료들은 또『이번각료회의의 제일 큰 성과는 일본의 주요각료들이 직접 한국에 와 제5차5개년 경제 사회개발계획에 관해 설명을 듣고 한국이 당면한 內外문제에 관해 인식을 하게된것이라고 밝히고『계속기탄없는 의견교환을 통해 양국관계의 새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日防衛費안늘리면 美、保護貿易 深化

【워싱턴10日=聯】일본이 이른바「무임승차」식 방위정책을 포기하고 서방방위전선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기운이 보다 심화될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紙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東京發기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운고조와 관련, 가장 심각한 사태진전은 미의회내 친일인사외 근본적으로 개방무역체제를 지지해온 의원들 사이에서 조차 대일개방무역에대한 경종이 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소노다外相 ◇盧信永外務

「가깝고도 먼 韓日」…두 主役의 表情

◇2일간에 걸친 韓日閣僚회의가 일측의 「防衛分擔」 책임회피로 決裂, 幕을내린뒤 수석대표인 盧信永외무장관㊨과 소노다外相의 모습。웃음속에 숨겨져있는 胸中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가까우면서도 가깝지않은」 韓·日관계를 보는것같다。

"安保·經協분리不變"

소노다 會見

소노다(園田)외상은11일韓日각료회담이결렬된뒤『이번韓日각료회의에서 韓日양국은 기탄없는 의견교환으로상호이해를 두텁게한 유익한회담이었다』면서『양국은 상호이해의 증진과 문화및인적교류를 넓혀 국민적 기반위에서 韓日협력우호증진을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이어『공동발표문은양국의 의견을 합의한점과 합의하지못한점을 집약발표한것』이라고, 전제, 이번회담에서 철도기술、관광、문화교류등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한것은 큰성과』라고 말했다。

기자들과 「一問一答」은 다음과같다。

—60억달러의경협요청을강력히 제기했으나 일본측은 재정상의 어려움등을 설명하고 곤란하다는 얘기를했다。經協과 安保에대한 일본의 분리원칙은 변함이 없는가。

▲변함이없다。안보와 경협은 별개의 문제다。

—신문발표문에는 그 내용이 없지않는가。

▲발표된 그대로다。

—공동성명이 나오지 못한 배경은 무엇인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점이있어 공동성명의 前段落인 신문공동발표문을 내놓았다。이발표문은 양국이 합의한것이다。

—발표문은 拘束力이 있는가。

▲양국이 합의한 것이므로 이합의에따라 계속 협의할것이다。

"頂上회담日程 미정"

盧외무 會見

盧信永외무부장관은 11일『이번 각료회의에서 60억달러의 經協문제는 결말을 보지못했으나 양측이 계속협의노력키로했다』고 말하고『양측은 頂上회담을 가능한한조속한시기에 개최키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마무리짓지않았다』고밝혔다。

盧장관은 7일하오 韓日정기각료회의가 폐막한뒤 국내기자들과 가진 회견을 통해 이같이밝히고『이번회의에서는 제5공화국의 국가건설을 위해일본측으로부터 협력을 보장받았다는 점등에 비추어 결코결렬이라고는 볼수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盧장관과의 1問1答。

—관례적인공동성명이없는 이유는?

▲이번회의는양국이 韓半島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韓半島의긴장 尙存에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공동성명대신 공동신문발표문이 나온것은 이번회의의 日程이 워낙 짧은데다 양측의 주장을 일일이 항목에 담기위해서는 오늘저녁이 돼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신문공동발표문제5항에 日本側이 對韓經協을위해「가능한 協力」을 표명했는데 이 가능하다는선은 어디까지로 볼수있는가。

▲제5공화국의 出帆과 발전을 돕는線으로 해석할수있다。

—外相會談을 재개키로 합의했는가。

▲수뇌회담을 조속개최키로만 합의했다。外相회담은 앞서 8월 東京회담에서 밝힌대로 필요할경우 수시로열수있는것 아닌가。

安保經協 끝내 결렬…共同聲明못내

韓·日閣僚會談폐막 共同발표문만 내놔

政策 전면再檢討필요

對韓安保經協에 관한 日本측의 무성의와 책임회피로 개막첫날부터 벽에 부딪쳤던 韓日정기각료회의는 11일 2일째 회의를 속개했으나 일본측이 종전입장을 고집함으로써 決裂된채 폐막、새로운 韓日관계의 정립을 위한 노력은 일단 좌절됐다。

회의가 결렬됨에따라 이번 韓日각료회의는 10차례에걸친 韓日각료회의史上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못하고「신문共同發表文」만을 내는데 그쳤다。

새정부 출범후 「제2의 韓日國交정상화」를 이룩하겠다는 한국측의 노력은 일본측의 無誠意에따른 이번 각료회의의 결렬로 외교적인 채널을통한 양측의 접촉은 계속될것으로 보이나 새로운탈출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不便하고 緊張된 局面에 접어들게됐다。

이소식통은 安保經協은 한국이 처음 제기한것이아니라 일본스스로가 오타와 頂上회담선언과 美日 공동성명등을 통해 스스로다짐한 약속이며 東北亞의안정을위한당연한공동 安保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를 외면한것은 한국민의 분노는 물론 모든 自由陣營으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면할수 없을것이라고 강조하고『비록 外交채널을 통한 계속협의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전이 없을경우 韓日정상회담도 어렵게 될것』이라고 비쳤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회의에서 나타난 국제신의를 저버린 일본의 無責任을 계기로 정치·경제등 모든분야에 걸쳐 強硬對應의 방향에서 對日政策을 전면재검토할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盧信永외무장관과 소노다(園田直)日本외상등을 수석으로하는 韓日양국대표단은 이날 하오4시35분 新羅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제2차전체회의를 속개, 한국측이 제시한 60억달러의 對韓經協차관제공에관한 타결을 시도했으나 안보·경협의 連繫를 한사코 거부하는 日側주장으로 회의는 완전결렬됐다。

社會漫評

秋夕 달……

地平線

두들기면 문은 열릴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있다。돈을 손에 넣으려면 남보다 앞질러 노력해야 된다는 말도 된다。한때 다이어먼드나 금·은으로 재미를 봤다고 한눈 팔고 있으면 어느새 세상은 거꾸로되기 일쑤다。지난 6월에 미국에서 나온 年例상품시장보고에서도 그것을 잘 알수있다。지난 5월말까지의 1년은 그에앞선 1년、그러니까 재작년과 딴판이었다는것이다。▼금·은이나 다이어먼드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데 비해 작년에는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했다고 이보고서는 말하고있다。중국도자기、주식、옛날 그림、우표、희귀한 책등이 물가를 앞지른 투자품목이다。중국 도자기는 1년동안에 36.5% 주식은 25.3%、그림은 22.9%、우표와 희귀한 책은 18%가 올랐다。물가 상승률을 10%로 잡았을 때의 숫자다。▼그러나 지난 10년동안을 꼽자면 금값의 28%에 이어 카피트、동전、우표、중국도자기의 차례다。최근 5년동안엔 순서가 약간 달라서 우표의 32.9%가 최고다。이어서 금과 중국도자기가 똑같이 30.7%。그리고 동전、은의 차례다。그러니까 일급장이도 돈을 모으사면 금·다이어먼드같은 귀금속과 중국 도자기나 우표·동전같은 골동품에 투자해야 된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처럼 안정된 선진국의 얘기다。빈 털터리나 전달도 하루 아침에 거드름을 피우는 갑부로 탈바꿈하는 신화를 우리는 '70년대에 흔히 봤다。복부인、골부인이 강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증권시장과 골동품시장을 휩쓸고 다닐때의 얘기다。고도성장바람을 타고 부동산 투기바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모두를 들뜨게 할 때였다。▼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아무래도 홍콩인것 같다。지난 4월 임페리얼·호텔 땅값이 1평에 1백40만4천홍콩·달러、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쳐서 1억6천3백만원이 넘는 값으로 팔렸다。서울 명동의 옛날 국립극장 일대가 평당 3천5백만원이라는건 지난7월 감정원이 내놓은 숫자였다。홍콩의 땅값은 그러니까 그4배가 넘는다는것이다。▼감정원의 값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평당 3천5백만원이라면 1만원짜리 돈을 11겹으로 깔아야된다고 한다。전국에 걸쳐서 보자면 땅값은 13년동안에 평균 49배나 뛰었다고 국세청은 말하고있다。그 땅값의 큰몫은 역시 투기꾼의 주머니에 들어갔다고 할수있다。하지만 이제 다시는 정직한 시민들이 투기의 손에 놀아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5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7
은 : 온스당 US 8.8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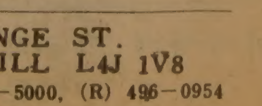
주식회사
이훈모부동산
정직
성실
221-2084, 225-1204
(4975 YONGE ST.
AT SHEPPARD ST.)
HUN MO LEE
REAL ESTATE LTD.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블루어안경
●Zeiss(Marwite) ●Rodenstock
●Christian Dior ●Nina Ricci
●Menrad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NORTH YORK
GM
CHEVROLET
OLDSMOBILE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병권 올림

김병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나토、대규모機動훈련

이달중 陸海空軍동원 有事時대비

蘇攻擊때 美신속參戰시험

【브뤼셀10日AP=聯】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이달중 40여만병력을 동원, 서구에 실전이 발생했을경우를 가상하여 일련의 훈련중 마지막단계의 육·해·공3군 대규모기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달중순께 절정에이를 이번 나토기동훈련은 나토군의 공동작전태세와 소련의 육·해양면공격을 받을경우 서구에 대한 미국의 신속한 구조능력여부를 시험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이번 기동훈련 계획수립에 참가했던 한나토군공보장교는 소련은 최근 몇년사이 해군력을 꾸준히 증강, 전통적으로 연안함대의 성격을띠어온 해군력을 서방측해상항로에 실제적위협을 가할수있는 외양함대로 발전시켰다고 지적하고, 나토는 그어느때보다도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할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련은 현재 노동위기를 맞고있는 폴란드의북부 발트海와 그인접지역에서 航母 키에프號를 비롯, 공격용 상륙함8척등 50척이상의 함정을 동원, 2차대전이래 최대규모의 육상작전 지원훈련을 실시중이다.

매직·소드(魔劍)로 불리는 기동훈련을 막 끝낸 나토는 현재 해군병력9만명을 동원, 英國해협에서 나토측이 새로 정립한 해상항로 보호개념을 시험중인데 미국은 지난8월이래 독자적으로 12만의 해군이 참가한 가운데 南大西洋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해오고있다.

나토공보장교는 또이번의 대규모 3面입체 훈련을 통해 나토군 최고사령관이 전대서양 陸·海·空에걸쳐 작전지휘권이나 해상항로보호능력을 명백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또 오는29일부터 10월15일까지 17일간 현재 蘇聯이 대규모훈련을 실시중인 발트해역에서 덴마크·西獨·네덜란드해군을과함께 또한차례 기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키스 세례받는 바웬사 폴란드自由勞組 지도자 레흐·바웬사가 10일 그다니스크에서 제1회 자유노조 전국대회를 폐막한뒤 2명의 자유노조 여성회원들로부터 꽃송이와 키스로 인사를 받고있다. 【그다니스크11日AP聯=聯】

"波議會 자유選擧로"

바웬사엔 中央集權的 권한부여

勞組 全國大會대의원회

【바르샤바10日AP=聯】폴란드 자유노조 제1차전국대회는 10일 폴란드의회의 자유·비밀선거를 촉구한는 결의안등 7개항의 제안및 계획을 공식 채택하고 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에게 강력한 중앙집권적권한을 부여한후 제1단계 회의를 폐막했다.

공산권사상 처음열린 자유노조전국대회는 8백96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속된 1단계회의에서 ①자유노조의 전동구권확산촉구 ②노동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요구 ③지금까지 공산당의 절대통제하에 실시되었던 총선의 자유·비밀투표 촉구 ④학교교과서내용의 개편등 공산국으로서는 유례없는 개혁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회마지막날 채택된 총선개혁을 위한 결의안은 공산당,농민당등의 연합체인 국민단결전선이 의원후보자들의 후보자격심사를 해오던것을 철폐하고 자유·비밀투표를 실시할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보다 앞서 노조지도자 바웬사는 노조의결속과 폴란드의 민주화투쟁을위해 약간의 독재가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역설, 전국대회대의원들로부터 압도적 다수의 신임을 획득했다.

社會主義체제 도발 東歐圈、波勞組에

【모스크바10日UPI·로이터=聯】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국가들은 10일 폴란드자유노조가 노조결성을 촉구한것을 가리켜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공개적인 도발이며 전방진 수작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이날 바르샤바발 보도에서 폴란드 자유노조전국대회의 이같은 선언이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투쟁요구를 내포한것이며 공개적인도발』이라고비난했다.

蘇軍 千여殺害 아프간叛軍

戰車 2百臺도 파괴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10日UPI=聯】아프간회교반군은 10일 그들이 최근 아프간동북부에 위치한 소련군사기지 칼라가이를 공격, 소련군 1천명이상을 살해함으로써 이제까지 최대의 전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아프간반정부세력대변인들은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있는 페샤와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이 지난8월21일밤과 22일새벽에 걸쳐 카불북쪽 1백45㎞에 위치한 바글란州에서 칼라가이소련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히고 칼라가이기지는 그들 반정부세력의 바글란산악지점에서 불과 2~9㎞정도밖에 떨어져있지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들은 그들이 1백22㎜로키트포와 光線砲등을 이용, 소련군1천명을 살해했으며 소련군이 타고있던 2백대의 전차등 각종차량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레이건과 맥아더未亡人 담소 美국방성에서 10일 거행된 맥아더회랑봉헌식에 참석한 레이건美대통령이 故맥아더원수 미망인에게 바짝 다가가 이야기하고 있다. 【워싱턴10일AP電송=聯】

메아리

달의 얼굴

중국에서 처음 인간과 달의 관계가 그려진 것이 「항아분월」(姮娥奔月)의 이야기다. 일종의 신화같은 이야기로 옛중국인들은 달나라에 항아라는 선녀가 살고 있다고 믿었다. 항아는 夏나라 시절 名弓의 아내였다. 선녀인 西王母에게서 선약을 훔쳐 먹고 승천하여 달에서 산다고 한다. 달 속에서 외로운 선녀는 홀로 쓸쓸하게 앉아 베틀을 짜고 옥토끼가 방아를 찧는다.

달속에서 노니는 항아는 조선조 선조 때 여류시인 許蘭雪軒의 「遊仙詞」라는 시가에도 등장한다. 遊仙詞87수는 우리가 사는 지구와 달 그리고 은하수에서 신선들이 펼치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오키스트러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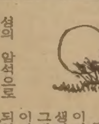
동서양어디서나 달은여성적으로 은근하게 느껴진다. 낭만과 우아의 심벌이다. 또한 사람과의 별과 고민의 거울이기도 하다. 달이 나오는 작품엔 대부분 哀傷이 짙게 깔린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투영되는 月光은 특히 망향과 동심이 어린다. 계수나무가 박히고 이태백이 노닌다는 「달아 달아 밝은 달아」라는 청양지방 민요가 동심의 달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집살이를 하던 申사임당은 고향을 두고온 心懷를 달에 붙여 노래했다. 「천리 고향은 만봉우리 가렸건만／마음은 항상 꿈속에 있다／한송정가에 달우리 이고 경포대 앞에 한줄기 바람이…」

천리타향을 떠도는 아낙네들의 그리움이 內房가사의 주제가 되었다. 한가위 만월은 바로 「망향의 달」이다. 그래서 고향의 달맞이는 평온을 비추고 타향살이 추석은 쓸쓸하게 느껴진다.

추석은 감각적인 명절이다. 동양의 달은 반드시 감상적이지만은 않다. 先哲들은 달에 생명체가 없음을 확신했었다. 그래서 달을 廣寒宮, 또는 氷輪이라고 불렀다. 표면이 광물이었다고해서 金精이라고도 했다.



인간에 비춘 달은 이렇게 詩情과 과학의 두얼굴을 보인다. 신화의 항아가 아닌 실존인간이 달에 降臨했던 일도 벌써 오래된 일이다. 오늘밤 달맞이를 하는 사람들은 尹善道의 달찬양을 다시 음미해 본은 것이 뜻있는 일일것이다. 「밤중의 광명이 너만한 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벗인가 하노라」

海外토픽

스트레스 통제하는 化學호르몬

美의료연구진 두뇌속에서 발견

【라호이어(美캘리포니아州)10日UPI=聯】미 캘리포니아주의 한 의료연구진은 10일 인간의 스트레스를 통제해주는것으로 믿어지는 화학 호르몬을 두뇌속에서 새로이발견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라호이어에 있는 소크 연구소 펩타이드 생물학실험실장인 와일리·베일 박사는 인간의 스트레스를 통제해주는것으로 믿어지는 코티코트로핀이라는 親床하부호르몬이 인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규명하기위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라고 말하고 만약 이호르몬이 스트레스 해소 작용을 가지고있는것으로 입증될경우 심장병·궤양및 고혈압등 스트레스성 질병치료에 신기원이 열릴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로핀 호르몬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을때 부신 스테로이드 모르핀류의 진통제와 같은 다른 뇌하수체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작용을 하는것으로 믿어진다고 베일박사는 설명했다.

인체속에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호르몬이 존재한다는사실은 거의4반세기전부터 알려져있었으며 이 호르몬의 실체를규명하기위해 10년간 많은 연구가 계속돼왔다.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약50만개의 羊의 뇌를 정제해서 코티코트로핀 9천만분의 1g을 추출해낸 다음 「화학적 청사진」을 떼내어 이 호르몬속의 펩타이드원량의 1만배에 달하는 화합물질을 합성해낼수 있었다고 베일박사는 전했다.

베일박사는 실험결과 이코티코트로핀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결정적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하고 인간은 진화되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탈출하거나 이에대처할 수 있도록 돼있는 복합적인 대응구조를 가지게됐다고 설명했다.

韓日 新聞 공동發表文

全文

①제11차 韓日定期閣僚회의는 81년9월10일및 11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한국측으로부터 申秉鉉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고문으로하여 盧信永외무, 李承潤재무, 高建농수산, 徐錫俊상공, 朴鳳煥동력자원, 尹子重교통장관이 崔慶祿駐日대사및 崔昌洛경제기획원차관과 함께 참석했다. 日本측으로부터 소노다·스나오외무대신, 와다나베·미찌오大藏相, 가메오까·다까오農林水産相, 다나까·로꾸스께通産相, 시오가와·마사쥬로運輸相, 고모또·도시오 경제기획청장관이 마에다·도시가즈駐韓대사와 함께 참석했다.

②회의는 다음사항을 議題로 채택하고 토의했다. (▲양국경제정세및 양국관계일반 ▲경제협력 ▲其他)

③양국의 閣僚는 엄한 정세하에서의 한국의 제5공화국의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한국정부및 국민의 의지와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고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8월 일본측 각료는 이와같은 노력이 韓半島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것을 높이 평가하고 全斗煥 대통령이 제창한 南北韓首腦회담등 실질적인 대화가 진전될것을 지지했다. 또한 한국의 제5공화국의 번영이 가능하다는 공감을 같이했다.

④양국의 각료는 韓·日양국이 상대방의 번영속에 자국의 번영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大局的인 견지에서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데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⑤양국의 각료는 양국의 경제정세등에 관하여 각기 설명했다. 경제협력 문제에 관하여는 日本의 각료는 우방으로서의 한국의 경제협력의 기본방침하에 가능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국의 각료는 이와같은 경제협력문제에 관하여 계속 협의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무 차원에서 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개최할것을 표명했다.

⑥양국의 각료는 양국의 경제에 관하여 협의할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⑦양국의 각료는 제12차 韓日정기각료회의를 내년 東京에서 개최할것과 그 詳細는 금후 外交經路를 통하여 결정할것에 합의했다.

⑧日本측 각료는 제11차 韓日정기각료회의에 즈음하여 한국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환영에 대해 심심한 謝意를 표명했다.

社說

安保經協거부는 背信

—日本의姿態와 二重戰略이 문제다

모처럼 3년만에 열렸던 韓日閣僚會議는 서먹서먹하고 교착된 분위기속에 진행된 이틀간의 협의끝에 결국은 아무런 타결도 보지못한채 11일하오 폐막되었다. 會議成果의 集約文書라고할 共同聲明도 채택하지않았다는 것은 67년이후 11차례를 헤아린 閣僚會議중 이번이 初有의 일이다. 다만 共同發表文은 쌍방이 「經濟協力문제에 관하여 계속협의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으며, 또 「양국간의 수뇌회담을 가능한한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같이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렇다할 成果가 없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로 양국 관계의 破局처럼 속단될 바는 아니다. 對話의 門은 항시 열려 있으며 앞으로 쌍방간의 政治的 折衝作業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次元을 높이거나 多樣化한다든지 혹은 日本측實務水準의 「選手交替」가 이루어질는지 모른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이번 閣僚會議의 핵심議題는 經濟協力문제였는데 이경우에 그 名分과 規模를 에워싼 양측의 주장이 평행한 平行線을 그어 끝내 타결을 보지 못한 셈으로 된것이다. 우리측은 韓半島의 위기 극복을 위한 韓國의 기여와 부담에 관련, 東北亞安保에 대한 日本의 책임의식과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전제 위에서 60억달러 정부차관과 40억달러 수출입은행차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日本측은 安保經協에는 응할수 없으며 또 經協액수도 정부개발원조 자금의 범위안에서만 프로젝트별로 年次的인 검토를 가해나가겠다고 고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경우 日本의 근본姿勢와 二重戰略이 문제시되지 않을수없다. 지난5월의 美日頂上 공동성명은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에 관련된 「日本의 역할분담」을 천명하였으며 또 7월의 오타와 頂上會談에서는 「經濟協力」을 통한 西方陣營의 一員으로서의 역할분담」을 다짐한바 있었다. 그 실천의 첫번째 케이스인 對韓經協에 있어 日本은 二重戰略의 자가당착을 노정한 꼴이다.

이로부터 귀납되는 日本의 外交姿勢는 ①세계적 추세인 「공동安保」에의 집착을 외면하고 실질적인 「공짜安保」를 즐기고 있다는점, ②국제사회의 良識인 「互惠共榮」의 원칙을 저버리는 小局的이며 近視眼的인 구차스러운 利害打算 ③소리없는 對韓高姿勢등으로 요약된다. 이경우 日本측의 현 外交當局者가 閣僚會議를 전후하여 경솔하고 무례하게 범여온 일련의 非外交的 言動을 상기하지 않을수없다. 우리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다.

그렇더라도 全斗煥 대통령이 日本側요人을 접견한 오찬 석상에서 지적했듯이 80년대는 相互依存의 시대이며, 또 的視野에서 요청되는 大局 여러가지 현안을 내포한 友好善隣관계의 정립은 「理性과 忍耐」를 바탕으로한 對話의 지속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어차피 經協교섭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수시 협의의 속개 과정에서 상응한 打開策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되는바 아니다. 政治와 外交에 대한 肯定은 結果책임을 묻는 법이다. 이점 서울閣僚會議의 어설픈 결말은 日本에게 있어서도 外交的失敗作임이 명백하다. 國際的環視裡에 노정된 「政治不在」의 인상에 비추어 日本측의 상응한 반성있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韓國의 방위노력은 평가하면서도 安保와 관련된 經協은 할수없다든지, 「綜合安保」를 말하면서도 「역할 분담」에는 인색하다는 식의 政策的彷徨이 오래도록 국제사회에서 용인되지는 못하리라고 내다보인다.

분위기부터 우겁고 지리했던 제11차 韓日閣僚會議는 成果없이 끝났으나 그問題整理는 向後의 지속적 對話를 위한 認識深化에 이바지하는바 없지 않을것이다.

日本政府는 그 役割과 進路에 관련된 座標設定을 허심하게 再省察해 마땅하리라고 본다. 우리측도 對日政策을 깊이있고 의연하게 再檢討해나갈 계제라고 생각한다.

敬虔하고 즐겁게

—한가위에 새겨지는 보람과참뜻

오늘 12일은 한해를 두고도 가장 즐거운 명절인 한가위 이다. 구름 한점 없는 가을밤 하늘에 드높이 떠서 온누리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보름달을 우러러본는 사람은 옛과 지금이 달라도 그 심정은 한결같다.

헤아릴수 조차 없는 아득한 옛날로부터 한가위를 고유한 우리의 명절로 지켜오면서 제각기의 오늘이 있게한 먼조상과 그리고 한해의 풍농을 가져다준 자연의 은혜를 생각한다. 새로 영근 오곡백과로 조상에 차례를 지내고 또 그들이 묻힌 무덤에 성묘하면서 평소 가까운 집안이나 이웃지들 까지도 한데 모여 이날의 보람과 기쁨을 함께한다.

아무리 바쁜 생활 속이라 하여도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또 교통편의 불편이 말할수없이 심하여도 그것을 무릅쓰며 서로의 발길은 고향으로 아니면 조상들이 묻힌 선산으로 몰린다. 현언이른바 민족의 큰이동으로도 되는 이 귀성의 발길은 누가 시킨일도 아니고 더구나 호령을 하여 되는일도 아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흐르듯 제각기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이루어지는 자연의 세이자 민심의 귀일인 것이다.

현대를 사는 삶이 도시화하고 산업화하여 기계적으로 분화된 나머지 인간적인 측면의 소외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가치체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가위를 위한 향념에는 조금의 흔들림이 없이 확고부동하다.

이렇듯 많은 전통적인 가치와 겨레의 고유색이 현대화의 드센 물결을 타고 변질과 변용을 하고 있을때 한가위만 유독 어떤 시대적인 격변에서도 끄떡없이 되려 명절로서의 경건함과 축제의 흥청거림을 더해가고 있는 현상을 대하며 우리는 관심깊게 생각할바 없지않다하겠다.

중추 한늘에는 달이 낮처럼 밝고 땅에는 춥도 더움도 않은 날씨에 한해 농사의 결실이 풍성하고 사람들은 그런 하늘과 땅의 조화가 이루는 자연의 가장 축복된 한 매듭을 잡아 조상을 공경하고 자연에 감사하는 기쁨의 날로 삼았다.

한가위에는 자연과 인간, 정신과 물질, 조상과 후손, 옛과 현대, 도시와 농어촌, 넉넉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가까운 사이와 서먹한 사이를 가릴나위 없이 기쁘게 하는 한결같은 밝음이 있다.

제5공화국에 들어 처음 맞는 올해의 한가위에는 이처럼 슬기찬 전통적 가치를 조금도 퇴색시킴 없이 겨레의 축제로 이어 대화합의 기풍을 더욱 다져봄직 하다.

이명절이 지니는 한결 같은 밝음이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이 앞으로 겨레의 새로운 단합과 도약의 기점이 되게 하고 우리일상에 어두운그림자를 드리우는 부정과 시비와 삶의 갈등을 가시게 하는 새로운 가치체계 재정립의 정서적 바탕이 되게해야 할것이다.

그렇진대 모든 사람들이 귀향의 발길이 바쁠때 돌아갈 고향을 잃은 실향사민의 처지나 아니면 모진 태풍의 상처로 실의에 젖었을 이재민의 고통,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외로움을 씹고 있을 노인과 고아들의 슬픔을 소외하지 않는 인정의 베풂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올따라 일부지방에 태풍피해가 있었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틀림없는 풍년이라 한다. 또 그런 풍요 속에서 맞는 한가위라 한해를 두고 이날 같기만을 빌었던 우리 선인들의 소망그대로 예년과 같은 명절을 틈탄 도둑사건이나 대형교통사고및 기타의 혼란이 없는 모두의 명절이 되어 겨레의 이 민속적과 신바람이 새로운 내일의 활력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란는 마음 간절하다.

政局往來

「돗자리」…"우리라도 똑같이 처리됐을것"

◆「失手」民正黨의 열던 신음회의하자」 11일상오 국회에서열린 民正黨의원·黨務者연석회의는 「괴로운문제에 대한 마음을 다잡게 하자」는 李載灐대표위원의 주문을 아는듯 바로 「돗자리사건」에 관한 보고와 해명으로 시작됐다.

「돗자리사건」의 미묘한 분위기속에 李대표위원은 1시간 10분간에 걸쳐 「나의 반성」이라고도할 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그런것을 그렇게 처리할수밖에 없었던 당의 입장」을 호소했다.

◆韓國經濟展望밝다니 부럽다 南惠祐국무총리와 가스통·토른 EC(歐洲共同體)집행위원장간에 10일낮 열린 회담은 巨視的으로 세계경제전반에 관한 의견교환에서부터 韓國과 EC간의 통상증대등 경제협력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다루어졌다고 한 배석자가 전했다.

南총리는 全斗煥 대통령의 1·12및 6·5제의내용과 배경등 우리의 對話를 통한 평화추구정책을 설명하고 蘇聯의 군사력증강추세등 對北韓의 對中共및 對蘇관계와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에대한 EC회원국의 성원과 지지를 요청.

토른위원장은 또 南총리가 韓國經濟현황을 설명하면서 내년부터는 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하자 韓國經濟의 밝은 전망이 부럽기만 하다고 했다.

【브뤼셀=河長春특파원】

LA 한국의날 퍼레이드에

브라운知事가 祝祭長맡아

제8회 로스앤젤레스 시 「한국의 날」 행사의 절정을 이루는 코리안·퍼레이드에 제리·브라운캘리포니아주 지사가 축제장(그랜드·마셜)으로 참가한다. 브라운지사는 오는 9월20일 하오3시 로스앤젤레스시 올림픽가를 따라 행진하는 꽃차행렬에 앞장서 한국의날 행사를 인도한다.

브라운지사는 「한인사회의 최대축제인 퍼레이드의 그랜드·마셜로 선정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퍼레이드에는 브라운지사외에도중국계인 마치·퐁주총무처장관이 한복을입고 참석할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支社】

1981—2 학년도 미시사가 한글학교 학생모집안내

미시사가 한글학교에서는 1981—2년 학년도 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수업기간 : 1981년 10월3일~1982년6월19일
수업기간 : 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장　　소 : 퀸·에리자베스 시니어 퍼브릭스쿨 (60 Service Rd. South Missisa.)
자　　격 : 1) 유치반이상 8학년까지
　　　　　2) 특수 교육반(9학년~12학년)
수업과목 : 한국어, 미술, 음악
특 수 반 : 고학년을 위한 영어교육반(미시사 교육청이 파견하는 영어교사가 지도예정)
합 창 반 : 미시사가 어린이 합창단을 창설코 단원을 모집중.
수 업 료 : 학생1명 39달러, 2명이상 78달러
연 락 처 : 문 가 자(828—6212)
　　　　　유 경 숙(277—2394)

미시사가 한글학교 교장
문 가 자

"아는 것이 힘"
소매상경영학 강좌안내

RSI™ RETAIL SERVICES INSTITUTE

〈캐나다 로스만·팔말 주식회사〉는 고도의 경쟁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매상을 위한 무료 경영학강좌를 마련했읍니다.

동사의 소매상경영연구소(Retail Service Institute)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캐나다의 현존하는 소매상들을 위한 이익 개선책과 경영의 능률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강좌는 소매상 경영학 전문코스로서 각종 세미나와 같이 일주일 한번씩 5주~6주간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7백여명 소매상 경영주들이 거쳐간 이 강좌는 오는 9월초부터 새로 시작될 예정이며, 10명 정도의 조그만 경영학교실이 될 것입니다.

등록은 선착순이며 $25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종강후 되돌려드립니다.

이 강좌에서 쓰이는 모든 교재와 자료는 무료입니다. 한국인 통역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강좌입니다.

등록문의는 : 1500 DON MILLS, DON MILL, ONT.
전　화 : (416) 449—5525
THE RETAIL SERVICES INSTITUTE
MR. PETER TESAR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아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 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 ROYAL RESTAURANT

祖國 폴란드 自由勞組도 그의 말에 따라 行動에 起伏

共産東歐 흔드는 敎皇의 東方政策

뉴스診斷

外信部 金善敦 기자

◇敎皇의 초상화 앞에선 波勞組지도자 바웬사

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 바웬사가 敎皇의 초상앞에서 딸을 안고 있다. 요한·바오로 2세의 입김은 폴란드자유화에 이어 東歐사회 구석 구석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뿌리를 흔들어놓고 있다.

로마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도전적인 對東구정책은 공산주의를 녹이는 자유화 바람의 진원이 되고있다.

요한·바오로 2세는 1978년 그의 교황피선때 6천만 동구권가톨릭교도들이 환호하며 기대했던대로 오랫동안 마르크스주의가 가톨릭에 「일방적으로 강요해온 데탕트」를 깨는 새로운 동방정책을 펴고있다.

폴란드의 카를·보이틸라 추기경으로있다가 새교황으로 취임한지 3년이되는 지금 바티칸의 대외정책은 뚜렷이 변했고 공산권에 큰 영향을 주고있다.

특히 교황의 조국인 폴란드에서 교황발언의 고저가 자유노조의 행동에 기복을 가져오고있음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수없다.

금년초 바티칸을 방문한 폴란드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자유노조는 비정치적성격을 갖고있다』고 선언했던 교황이 최근 폴란드의 민족적감정을 대변하며 자유노조를 지지하는 강력한 내용의 연설을 한것은 온건노선에서 상당히 과격한 노선으로 선회하고있는 노조운동과 맥락을 같이하고있다.

敎皇연설다음날 強硬

교황은 지난9월6일 주례강론을통해 폴란드국경변에 군사기동훈련을위해 10만병력을 집결시킨 소련을 겨냥, 강력하게 폴란드의 영토보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9월5일 개막된 제1차 자유노조전국대회는 그런 교황의 강론이 있고 하루후인 7일 『폴란드에는 현재 혁명이 진행중이며 자유노조가 바로 혁명의 주체세력임을 확신한다』고 선언하고 다음날인 8일엔 전 동구권에 자유노조운동의 확대를 촉구함으로써 對內外的으로 反정부反蘇의 이미지를 드러냈다.

또 폴란드자유노조대회는 자유노조의 발전에 가톨릭교회가 중추적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강조했다. 요제프·글렘프폴란드대주교는 이 전국대표자대회의 개막미사를 집전함으로써 자유노조와 가톨릭교회의 긴밀한유대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한것이다.

被擊관련說 反蘇자극

민족혁명과 더많은 자유를 성취하기위한 폴란드人의 투쟁을강력지지한 교황의 발언은 그가 피격사건으로인한 총상으로부터 회복된후 행해진것이다. 최근 교황피격에 소련KGB가 관련됐다는 설마저있어 교황을 존경하는 폴란드人과 자유노조의 反蘇감정은 더욱 자극된 듯하다.

교황요한·바오로2세의 새로운 동방정책은 그가 이름을 물려받을 정도로 존경한 선임자들인 요한23세와 바오로6세의 경우와는 다르다. 그는 공산주의에 피동적인 타협보다 능동적인 대결로 대처하려한다. 따라서 교황은 그의 대외정책을보좌하는 교황청요직에 東歐출신 강경파성직자들을 몇사람이나 임명했다. 현재 東歐정책담당차관은 루마니아출신 아우드리스·바키스 추기경이다.

교황의 새로운 철학내용은 1975년의 동서간 헬싱키협정서명국들에게 지난해 발송한 공한에 잘 담겨있다. 이공한에서 교황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가장기본적이고 양도할수없는 인간의 권리』라고 규정했다.

교황은 공산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실천하는데 필수적인 많은 권리들이 부정되고있다고 주장했다. 교황은 공산국을 향해▲부모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대로 자녀들을 교육시킬수있는 자유▲종교서적의 구독및 출판의 자유▲매스컴을 이용, 교회밖에서 종교적 신념을 설교하고 사회단체에 교리를 선교할수 있는 자유를 보장토록 촉구했다.

공산권출신 교황인 요한·바오로2세는 교회지도자들이 정권과 지나치게 밀착하면 더많은 종교적 자유를 쟁취할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체득하고있는 인물이다. 때문에 최근 공산권을 방문하는 교황청성직자들은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 의식적으로 정부관리와의 접촉회수를 줄이고 대신 현지교회지도자들과의 면담에 주력하게 되었다.

親共 聖職者들은 도태

요한·바오로2세가 서품할 동구권의주교를 엄격히 선정하는것도 종래와는 다른 방침이다. 요한23세나 바오로6세등은 특히 헝가리와 체코정부에 주교서품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했으나 현교황은 이제 친공적인 소위「평화주교」는 주교로 서품하지않고있다.

이같은 요한·바오로2세의 새정책은 예상했던대로 이미 충돌을 빚고있다. 체코공산정부는 주교서품을싸고 바티칸교황청과 대립, 결국 전체교구13개중 3곳에만 현재 정식주교가 있다. 또 바티칸은 작년11월 유고의 슬라보니아공화국의 한주요 교구주교를 선택하면서 열렬한 친정부司祭를 제쳐놓고 정치적기피인물인 신학교학장을 대신 서품함으로써 공산정권을 크게 흥분시켰다.

靑年층에 主敎들人氣

요한·바오로2세는 또 동구권주교들에게 폴란드주교들처럼 신도의 권리를위해 적극적으로 對정부투쟁을벌이도록 고취하고있다.

교황은 공산정권이 사제들에게 봉급지급등의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을 평신도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작전을 쓰고있음을 익히 알고있다. 이 공산당작전은 노골적인 탄압보다 더욱 효과를 내는 교회영향력분쇄방법임을 간파한 교황은 주교들에게 종교적자유쟁취를위한 성직자들의 요구만 내세우지말고 가톨릭신자뿐만이 아닌 모든 일반대중의 대변자역할을 수행토록 지시하고있다.

적극對決 태세로 自由化의 震源役

체코·유고에도 이미 「바람」

교황의 능동적인 새동방정책은 공산당의 탄압에도 불구,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있는게 사실이다. 예컨대 유고의 가톨릭주교들은수년간 지켜온 침묵을 깨고 인권을 침해하는 공산정권에 도전하기시작했다. 체코에서는 오랜동안 구속생활을 참아오던 프란티세크·토마세크 추기경이 갑자기 소심했던 자세를 벗어나 정부비판에 나섰다. 물론 지금까지 이웃 폴란드에서 생긴 자유화물결이자국에 파급될까 깊은 우려를 해온 체코공산정권은 즉각 교회에 탄압으로 맞섰지만…. 체코정부는 현재 교황의 도전적인 동방정책을 중화시키기위해 사제들에대한 봉급을 인상하는등 강경및 회유양면책을 쓰고있다. 유고공산정권도 바티칸의 도전에 교회에대한 간섭을 증대하고있으나 일반대중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인기를 얻고있는 가톨릭주교들의 명망만 더욱 강화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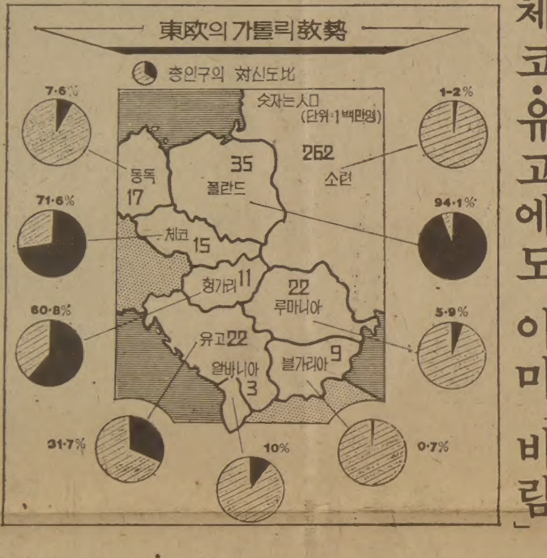
바티칸소식통은 요한·바오로2세가 곧 취임후 3번째의 回勅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있으며 그내용가운데 교황자신이 폴란드를 론 헝가리, 체코등 동구의 가톨릭국가에 변화를줄 열쇠로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언급할 것이라고 암시한다.

교황의 대외정책의 특징은, 동구공산권교회를 향해서는 사제가 인권투쟁에 더욱 과감성을 발휘토록 고무하고 남미등의 서방교회를 향해서는 권위있는 정부에 대항하여 혁명을 외치는 용공적 사제들이 정치참여를 자제토록 권고하는 것이다.

내년 두번째로 波방문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오는 82년8월 조국인 폴란드를 두번째 방문할 예정이라고 바르샤바 종교계소식통이 최근전하고있다.

1979년 교황의 첫번째 모국방문때도 동구권에 큰 정치적 충격을 주었던만큼 그의 두번째 모국방문은 공산정권과 자유노조간의 대결속에서 폴란드뿐아니라 전체동구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詩壇

새 강강수월래

金耀燮

한가위 달은 이슬로 뭉쳐진 달
한가위에 마른 명태를 끼고 고향을 향해 걷는 것은
한가위 달의 부름이다.
우리 가슴속 이슬들이 부름받은 것이다.
한가위 달은 헤어진 사람들의 만남의 계약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인 잔치를 밝히는 등불
온 땅은 시름을 쓸고 웃음 밭
햅쌀로 빚은 송편이 시집가고 싶은 처녀처럼 수줍고
햇과일은 지난 여름밤 번개에 놀랐던 일을 속삭이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왔 제사상
한가위 달에 뭉쳐진 이슬은
헤어졌던 사람들의 다시 만남만을 비치는 것이 아니다.
한가위 달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길도 비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만남을 노래한다
땅속의 죽음을 뚫고 튼튼해지는 뿌리
무등산의 한가위달 달떠온다 달떠온다
강강수월래
낙동강의 한가위달 이태백이 놀던달아
강강수월래
추풍령의 한가위달 양친부모 모셔다가
강강수월래
두만강의 한가위달 울고가는 저기러기야
강강수월래
백두산의 한가위달 잠든나를 왜깨우느나
강강수월래
그러나 달은 하나이다 겨레가 하나이듯
그러나 우리 삶이 지고있는 한가위달은
땅속의 죽음은 뚫고 비치나
땅위의 어둠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
도깨비 처녀 흐랑이 젊은이 옥토끼 손에 손잡고
달 둘레보다 더 큰 달을 그리며
강강수월래를 춤출 그날은 언제
편지 편지왔다 강강수월래
서울에서 편지왔다 강강수월래
평양에서 편지왔다 강강수월래

十字春秋

自然의 偉力

權寧大 <한국에너지硏 고문>

이번에 처음당하는 일은 아니지만 일전에 남해안일대를 할퀴고지나간 태풍애그니스는 정말 변덕꾸러기였다. 950㎖까지 발달해서 제법A급으로되더니 한눈팔 새 영 돼먹지않았다. A급답게 똑바로 북상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다른 태풍들모양으로 기하학적인 커브를그리고 동북동으로 의젓이 돌아갈것이아니라, 탱고라도 추는지 몇번씩 제자리걸음을하며, 비틀대더니 누가 친하자고그랬기에 하필이면 우리앞바다로 지나갈게 뭐람, 이름이 고와서그렇지 순악질이였다.

그러나 애그니스의 위력이 2메가톤급수소탄의 4백배나 되었다니 그만하기가 천우신조였다고하겠다. 우리는 지금 홍수는 막을수있는채비가 갖추어졌다고하겠으나 태풍만은 별수없이 앉아서 당할밖에없다.

지구상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천재지변들이가끔씩일어나고있다. 연전에 홍콩에서 지진이일어나서 깜짝들을 놀랐지만 그정도는 약과고,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연안지대에서는 자주일어날뿐아니라 때로는 1923년9월1일의 동경대지진같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가진 강진이엄습하는수가있어서, 일본사람들은 예부터 이세상에서 무서운것은「지진·천둥·아버지」라고까지 전해오고있다. 요즘은 아버지 대신에 마누라가 무서워졌다지만 천둥은 여전히 무서운 모양이다.

우리도 금년은 이상하게도 벼락의 수난의해이어서 국내에서는 한라산에서 야영하던 대학생2명이 낙뢰로 죽었고, 국외에서는 7월8일 알프스의 아이거북벽 해발3천1백20m 지점에서역시 낙뢰로 2명의 등반대원이 목숨을 잃었다. 후자는 우박과 눈보라속에서 채 배낭을 벗기도전에 벼락이 떨어졌으며 한사람은 3백m나 날아갔다니 가히 그 위력을 짐작할수 있다.

천재지변에는 이밖에 화산폭발도 있으나 가장 심했던 크라카타우 화산의 경우 그 위력은 이번의 애그니스나 동경대지진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자연의 위력의 한계가 같다.

지구상에서의 이들 천재지변의 무시무시한 위력 앞에서는 극히 미미한 존재인 인간의 지혜로 이것들을 예방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이상, 불가불 인간은 경건한 마음으로 자연을 경외할 박에 없지 않을까.

趙治勳名人 緖戰서 勝利

첫도전자 加藤맞아 한집半차로이겨

제6기 名人戰 7번승부제1국(1~318)
白 名人 趙治勳9단(1승)
黑 도전자 加藤正夫9단(1패)
(제한시간 각9시간·黑5戶半공제)

84—77, 154—147, 171—128, 173—96, 186—180, 189—180, 192—183, 212—208, 214—209, 228—168, 231—117, 238—122, 262—158, 263—198, 264—166, 265—165, 266—163, 269—239, 270—166, 271—257, 272—158, 273—241, 289—247, 292—157, 316—309

【東京支社】 趙治勳名人은名人位에 오른후 처음 가진 방어전에서, 도전7번기 제1국을 이겨 서전을 장식했다.

지난9·10일 양일간東京에서 열린 제6기 名人戰(朝日新聞주최) 도전 7번기 제1국에서 趙名人은 白을들고 도전자 가토·마사오(加藤正夫) 9단을 8백18수만에 한집半차로 이겨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제한시간은 각9시간 가운데 趙名人은 8시간59분, 가토9단은 7시간6분을 각각 소비했다. 제2국은 오는24·25양일간 京都에서 열린다.

세계 레슬링大會 어제 유고서開幕

【스코피아(유고)=聯】 81년도 세계 레슬링선수권대회가 11일하오(한국시간) 유고의 남부도시 스코피아에서 한국을비롯 30개국 2백여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됐다.

한국은 美國·蘇聯·日本·루마니아 등과 中共등과 열린경쟁을 벌일것으로 보이는데 라이트급의 柳貴卓, 주니어플라이급의 孫甲道는 메달후보로 꼽히고 있다.

韓國등 14개국參加 亞洲 테니스大會에

【방콕10日聯=합】 오는14일부터 18일까지5일간 타이의 치앙·마이에서 개최되는 81년도 아시아테니스선수권대회에 韓國을 비롯,日本·臺灣등 14개국이 참가한다고 泰國테니스협회(LTAT)가 10일 발표했다.

이번대회 참가국은 韓國·日本·泰國·臺灣·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스리랑카·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지아·싱가폴등 14개국이라고 LTAT는 밝혔다.

아랍에미리트팀 뉴질랜드 擊破 메르데카蹴球

【쿨랄룸푸르10日聯=합】 최하위를맴돌던아랍에미리트는 10일 속개된 메르데카蹴球대회 뉴질랜드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 이변을 낳았다.

게베니거또世界新 女子平泳 1百m

【스플리트(유고) 8日UPI=聯】 東獨의 우테·게베니거(17)는 8일 속개된 제15회 유럽수영선수권대회 여자평영 1백m에서 자신이 세운세계기록 1분9초39를 깨고 1분8초6으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역시 東獨의 이네스·가이슬러도 남자평영2백m에서 세계기록인 자신의 2분8초97을 깨고 2분8초5로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무라따 7차도防禦 OPBF밴텀級

【도오꾜10日AP=聯】 동양·태평양권투연맹(OPBF) 밴텀급 챔피언인 日本의 무라따·에이지로는 10일밤 필리핀의 도전자 빌리·아바토를 12회 판정으로 물리치고 타이틀7차방어에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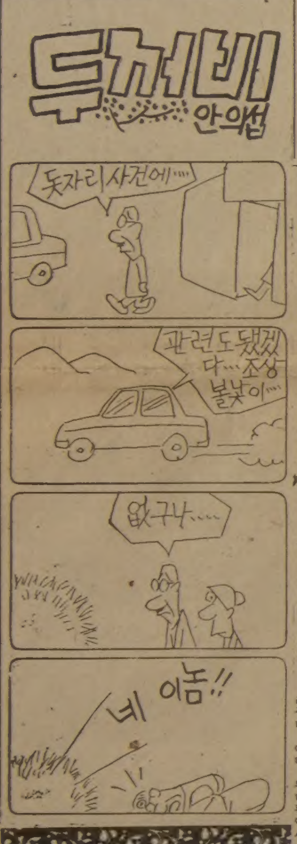
韓銀, 3승決選진출 星港국제농구

싱가포르체육절기념 국제농구대회(6~12일)에 참가한韓銀팀은예선에서泰國·印度·싱가포르A팀등을차례로격어 A조1위로결선에 올랐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전적
韓銀 85—72 태국
韓銀 90—66 인도
韓銀 64—62 싱가포르A

K·T 宋秉煥기자 記者室서 卒倒순직

코리아·타임스 사회부 宋秉煥기자(31·사진)가 11일 하오5시 출입처인 체신부기자실에서 갑자기 졸도, 高麗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못하고 순직했다. 연락처 722-0075.



加취업 女性 봉제사 선발에 신중 기해야

일부는 서툴어 不信받아

【터론토=宋建鎬기자】 한국여성봉제사 1백61명이 9월부터 또 캐나다에 취업이민하게되었다.

9월11일 박봉효 매니토바州 위니펙 한인회장에 따르면 매니토바州 봉제협회는 연초 한국에 대표를 파견,위니펙에서 취업할 여성봉제사 1백61명을 선정했으며 이들은 9월부터 연말까지 30~35명씩 나뉘어 전원 캐나다에 취업이민한다는것이다.

매니토바州 봉제협회는 당초 한국으로부터 여성봉제사 2천~3천명을 고용할계획이었으나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해 캐나다에 이미 취업한 일부 봉제사들의 자질문제로 계획을 재고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작년10월부터 위니펙에 집단으로 취업한 한국여성봉제사 1백명은 대부분 학력이 고졸정도인데다 일에 서툴기 때문에 매니토바州 봉제협회측으로부터 자질문제에 관해 불평을 듣고 있다.

이들 여성봉제사들중 5~6명은 캐나다에도착후불과 6~9개월만에 휴가를 얻어 2~6주간 한국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들은 모두 가정사정이나 부모위독등을 이유로 일시귀국허가를 받았다.

빅봉효 한인회장은 한국봉제사들의 자질문제와 근무불성실등으로 야기되는 현지업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총영사관에 앞으로는 가급적 취업1년미만자에게 귀국을 억제토록 건의했다고밝혔다.

더구나 이미 위니펙에서 취업하고있는 여성봉제사들은 대부분 현지생활에 적응을 하지못한채 터론토나 몬트리올등 대도시로 이주할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한국봉제사 캐나다취업에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출신 李모양은『교회등 외부간섭으로 이곳생활에 염증을 느끼고있다』면서 『앞으로 2개월이지나면 취업1년이 되기때문에 터론토로 떠날 생각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여성봉제사들 중에는 도착 9개월만에 아기엄마가 되어 한국봉제사에대한 이미지를 흐려놓은 경우도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현대한국작가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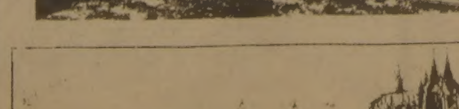
(양로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전시회)

이양원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신인 예술상 수석상 수상
—국전 특선5회
—국전 문공부 장관상
—국전 입선8회
—각종 초대전 출품및 개인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일연회 회원

유종민
—서울미대 조각과 졸업
—서울대 교육대학원 졸업
—각종 초대전 출품
—국전6회 입선
—제3회 개인전 가짐
—각종 미전 심사위원
—현 관동대학 미술교육과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INSEA한국회원

조풍각
—서울 미대회화과 졸업(서양화)
—신인 예술 장려상 수상
—각종 국제대회 초대전 출품전및 개인전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추계예술 조교수
제3구룹회원

권승연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1회특선)
—창작미협전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제3구룹전
—한국현대 도자기 실인전



한풍렬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서울미대 대학원 졸업
—대학교 강사
—관인 모뉴망 미술학원장
—경기도전 수석상 수상
—국전특선1회 입선6회
—각종 미전출품및 개인전2회
—중앙미술 내상전 장려상 수상
—현 한국미협회원, 일연회 회원

장연탁
—서울미대, 온타리오 미대졸업
—국전출품
—낙우회 회원전 출품
—이태리 마리노(로마)국제 비엔나레 출품
—이태리 카라라 국제조각 심포지움 참가
—이태리와 카나다에서 4번 개인전
—현 캐나다 조각협회 회원
●장씨 작품이 영구소장된 화랑
이태리 미라노 현대미술관
베니스 누오브 스파지오 화랑
토론토 가보 화랑
캐나다 조각협회

나영삼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
—한국대상전 출품
—제1회 한·일 작품 교류전 출품
—미술회관 초대전 출품
—창작미술 협회전 출품
—한국미협전

장 소 :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특설화랑)
시 간 : 10월8일(목), 9일(금) : 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 〃 2시~ 〃
〃 12일(월), 13일(화) : 〃 6시~ 〃

주최 : 한인양로원 건립위원회
후원 : 서울대학교 동창회, YMCA, 한국일보, 민중신문, 코리언저널, Y멘즈클럽(알파, 베타)

나의 이력서 윤치영 ㊺

〈題字·尹致暎〉

麻浦莊 시절

두달간 머물며 永久居處로 이사준비

하지將軍과 마찰 秘書室長서 물러나

敦岩莊생활은 불과 半年만에 끝났다. 집주인 張震燮이 집을 비워줄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가 집을 비워줄것을 요구한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나는것은 두가지정도이다. 첫째가 左翼의 습격우려이다. 左翼은 자신들이 날조한 소위 「人民共和國」에 李承晩박사를 主席으로 추대했으나 李박사가 응하지않아 나를 납치했었다. 아놀드군정장관 일행을 敦岩莊에 초대하고 준비에 바쁠때인데 이들은 明月舘에모여 李박사를 초청했다. 李박사가 불응하자 나를 대신 강제로 데려간것이다. 이끄는대로 明月舘에 들어가니 呂運亨을 위시한 3백여명이 모여 李박사가 오지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이었다.

나는 이들에게 6시간동안 둘러싸여 「人共」의 무모함을 說破하고 論爭을 벌였는데 오래있으면 위험할수밖에 없어 奇計를 꾸며 간신히 빠져나왔다. 미 소식을 들은 李박사는 『고이헌 사람들…』 人共이 뭐 말라비틀어진것이며 主席은 무슨 소리냐』고 불같이 화를 냈으며 이후 左派와의 대화는 거의 단절되었다. 李박사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자 「人共」은 청년들을 시켜 내가 탈출한 다음날 새벽 敦岩莊을 습격했다. 1백여명이 총을 쏘며 쳐들어오는 것을 美軍이 출동하여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는데 그후에도 몇차례의 습격이 있었다.

집주인은 습격이 잦아 집이 부서질 위험이 있는데다 겁도나고해서 집을 비워달라고한것 같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진짜이유는 하지장군과의 不和에서 빚어진 것이다. 당초 하지는 李박사를 극진히 예우했으나 臨時政府에 대한 태도에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하지는 臨政을 좋아하지않은반면 李박사는 臨政의 法統을 주장했었다.

그는 종당엔 臨政의 還國을 승인하면서도 入國형식만은 개인자격으로 들어와야한다고 했다. 이문제로 하여 李박사와 하지는 근본적으로 금이갔다. 하지와의 不和說이 퍼지자 敦岩莊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따라서 집주인은 李박사를 요즘말로 『별볼일없다』고 판단, 집을 비워달라고한 것이다.

우리는 炎涼世態를 탓하며 곧軍政에 부탁, 麻浦莊을 빌렸다. 麻浦와 漢江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있던 麻浦莊은 美國人이 서머 하우스(여름휴게소)로 쓰던집으로 모양은 크고 좋았으나 전혀 수리를 하지않아 강바람이 집전체를 휘감아 매우 추웠다.

麻浦莊에는 불과 2개월정도 머물렀는데 이때 내가 생각한것은 李박사가 영구히 머물수있는 집을 구하는것이었다. 다행히 權寧日(실업가)등 30여명의 재산가가 李박사돕기운동을 전개, 梨花莊을구입, 李박사앞으로등기해주었다. 權은 혼자 당시돈으로 수백만원을 내었는데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계산에는 밝지못해 누가 얼마를 내고 梨花莊을 얼마에 사들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麻浦莊에 머물면서 梨花莊수리에 열을올린 덕분으로 麻浦莊생활은 매우 짧았다. 그러나 나와 李起鵬의 신변에는 주요한 변화가있었다. 내가 비서실장자리를 물러나고 李起鵬이 집안비서에서 隨行비서로승격한것이다. 당시 하지의 政治顧問으로 있던 랜던은 日帝때 서울에와 있던 領事였다. 그는 親日的 인사이면서呂運亨이나朴憲永등과가까왔다. 그는臨政의 法統을반대했고 따라서 李박사의 주장을 하지가 정면에서 반대하도록 충동질했다. 李박사는 이런 랜던을 무척 싫어했었고 나는 李박사의 곁에서 그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했었다. 또한사람 하지의 연락관으로 버치가 있었는데 나와 프린스턴大동창인 그는 臨政보다 左翼系에 더많은 관심을 두고있었다. 랜던의 행동을 지켜보던 李박사는 어느날 나에게 랜던에 관한 사실들을 적어 하지에게 전해주라고 지시했다. 나는 곧 랜던에 관한 자료를 모아 그의 경력과 주장의 억지,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하지앞으로 보냈는데 이때 이글을 번역해주러갔던 사람이 당시 학생으로 麻浦莊에 드나들던 朴啓萬(전新民黨국회의원)이었다.

그는 곧장 이글을 하지의 보좌관이었던 李卯默박사에게 전했는데 『누가 보냈느냐』는 질문에 『東山(尹致暎)이 보냈다』고 대답했었다. 이때문에 하지는 怒發大發, 李박사에게 항의했고 文案작성및 전달자가 나라는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李박사는 체면상 내가 麻浦莊에서물러가는 형식을취하지않을수없었다. 나는 李박사와상의한끝에 공식적으로는 그때 창립된民主議院사무총장일만 맡기로하고 李起鵬이 대신 李박사를 수행토록했다. 물론 나는 형식상으로는 비서실장을 물러났으나 계속 麻浦莊에 드나들며 모든일을 총괄했는데 李起鵬은 이때부터 出世街道를 달리기시작했다. 훗날 그가 한창 世道가 왕성할때 아들 李康石을 李박사의 養子로 하겠다고 내게 양해를 구해왔다. 李박사와 나의 私的관계를 아는데다가 내가 그를 도운사실을 잊지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에 분명히 반대했지만 그는 내반대를 묵살, 千秋의恨을 남기고 말았다.

◇45년 10월27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解放慶祝 전국체육대회에서 李承晩박사가 치사를 하고있다. 右는 체육회장인 呂運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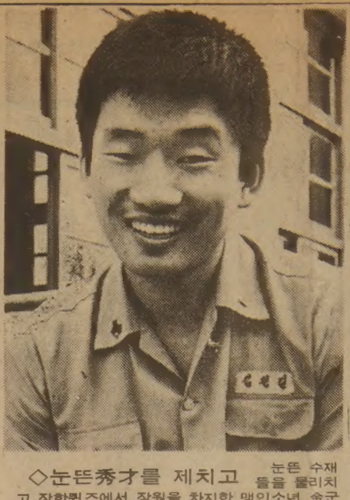
肢體장애學生에 최고의 秋夕선물

서울盲學校 金清吉군 MTV 奬學퀴즈서

눈먼少年이 「壯元」

박수와 눈물…"이겼다"

아마도 생애 최고의 추석선물 일것이다. 국립서울맹학교(서울鍾路區新橋洞·교장沈鼎燮) 고등과 3년金淸吉군(19)이 고교생들이 지식과 재치, 센스로 대결하는 TV장학퀴즈에서 당당 주장원을 차지했다. MBC·TV의 장학퀴즈가 생긴이래 4백36주만에 처음 생긴 이변이기도하지만 「눈먼소년」이 명석하고 똘똘한 재간덩어리 「눈뜬수재」들을 당당히 제끼는 과정은 차라리 눈물없이 바라볼수없는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눈뜬秀才를 제치고 눈뜬 수재들을 물리치고 장학퀴즈에서 장원을 차지한 맹인소년 金군은 『맹인에 대한 지나친 동정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金군의 장원은 TV방청석을 박수와 눈물의 열기속으로 몰아넣기도 했지만 자칫 그늘에 가려 살아야하는 지체장애자들에게는 천마디의 위로보다도 더값진 자극제가 됐다.

金군이 3명의 경쟁자와 함께 자리를 잡은뒤 「서울 맹학교 학생」이라고 소개되자 공개홀에 나와있던 방청객들은 숨을죽였다. 이런종류의 대결을 상상도 해보지 않았기때문이었을것이다. 긴장속에서 金군은 경쾌한 스타트, 시작부터 버저를 제일먼저눌렀다. 차차 방청석은 金군의 응원단으로 바뀌어가고있었다. 金군이 득점할때마다 박수가요란하더니 그것은 이윽고 열광으로 변해갔다. 담당 프로듀서가 조용히 해달라고 거듭호소했으나 공개홀의 열기를누를 길이 없었다. 마침내 3백80점을 따낸 金군이 「장원」으로 뽑히자 방청석에서 金군에게 응원을 보내던 맹학교동료들의 입에서 신음과같은 오열이 번져나오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방청석에서 눈먼아들의 영특함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있던 金군의 어머니 李玉姬씨(60)의 얼굴도 물기로 얼룩졌다.

金군이 장학퀴즈에 출전하기로 처음맘먹은것은 지난6월. 학교의 추천을받아 신청했으나 사정에의해 나가지 못하고 지난달29일에야 이뤄졌다.

『맹인이라도 정상인과다름게 없다는 사실, 얼마든지 정상인과 실력을 겨룰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위해 모험을 감수하고출전했다』는게 金군의 솔직한 고백. 평소 이 프로를 귀로만듣고 5백점까지 득점하곤해 자신이 전혀 없었던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장원이되리라곤 기대하지 않았다. 학교측에서도 정정당당히 싸울수있다는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퀴즈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홀안은 전에없던 흥분으로 들뜨기시작했다. 초반엔속전속결로하고 비중이큰후반에선신중을기하자는작전으로임한 金군은 첫 둔제부터 맞혀가기 시작했다.

중도에 선두를빼기고 감점으로 기본점수보다 낮은 1백90점까지 떨어졌으나 저력을 발휘, 끝내 3백80점으로 주장원을 차지했다. 차석이 3백30점, 나머지 3명이 2백40·2백30·2백점으로 金군의 장원은 당당한 것이었다.

金군은 李씨의 3남3녀중 막내. 국민학교 2학년때 눈이 아프기 시작, 병원을 찾기전에 「시신경위축증」으로 시력을잃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제1標的은 장신中共

世界 J女子排球앞둔 韓國팀전략

파워에 B퀵速攻 능란

세터 楊錫蘭 오픈攻擊 위력

수비위주의 持久戰서 勝機모색

하루 10시간 마무리訓鍊

◇볼하나하나에 승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훈련에열중하고있는 여자주니어대표선수.

한국 여자청소년 배구대표팀은 제2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10월14일·멕시코)를 한달 앞두고 泰光產業체육관에서 마무리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1회대회(77년·브라질)에서 우승을 차지, 대회2連覇를 겨누고있는 한국은 과연 소망을이룰것인지 배구팬들의 관심을모으고있다.

16팀이 출전하는 이번멕시코대회에서 한국의 가장 큰 적수는 최근 장족의발전을보인 中共을 비롯, 소련·쿠바등이다. 이들 3팀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위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은 日本·페루등과 함께 상위 수준이라고 국내외전문가들은 평가하고있다.

그런데 韓國은 상위그룹중에서도 中共만 꺾는다면 나머지 팀에대한 승산이 있다는 전망아래 中共격파전략에 초점을 두고있다.

주니어대표팀 宋世榮감독은 최근 中共팀의 비디오테이프를 입수, 면밀한 분석을 마쳤다. 이 자료에 의하면, 中共은 한국보다 평균 5cm가 큰 179cm의 평균신장을 가졌다. 또한 세터 楊錫蘭도 179cm의 장신으로 볼배분뿐만 아니라 오픈공격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中共은 장신화에 성공했으면서도 키큰팀들이 흔히 보이는 공수의 헛점이 거의 없는 탄탄한 전력을 갖고있다. 남자플레이를 연상시킬 정도로 파워가 뛰어나며 B퀵등 속공도 완성돼있다.

이같은 中共에 대적하기위해 한국은 우선 수비에 최대역점을 두고 있다. 높은 中共타점을 블로킹으로 적절히 차단하지못할 경우

고 있다. 물론 공격에서 소홀하겠다는 의미가아니다. 속공은 속공대로 시도하면서 상대의 얼을빼는 트릭플레이를 새로개발했다. 서브리시브한후 한 자리에서 3가지이상의 공격을 할수있는 트릭플레이를 개발했으며 베스트의 포메이션을 8가지형태로 다양화시켰다. 이는 상대가 우리의 전술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게하는 잇점이 있다.

현재 6~4로 불리한전력을 이같은 수비와 트릭플레이로 커버할계획이다.

물론 문제는 국제경기경험이다. 中共은 최근 페루, 멕시코, 日本등지를 돌며 경험을 쌓은데 비해 한국은 지난 8월 하와이의 태평양연안대회 참가가 고작이다. 국가대표선수를 겸한 주장 李恩敬만 제외하면 하와이대회 출전경험뿐인 것이 가장 취약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오는 14일부터 대회개막전까지 이어지는 美國전지훈련에서국제경험과장신대비책을 보완한다는게 宋감독의 복안이기도 하다.

선수들은 상오9시반부터 3시간동안 수비·볼로킹·서브리시브등의 훈련을쌓고 하오 3시부터 8시까지는 전략적플레이, 야후 2시간은 개인기보완등 하루 10시간 이상의 강도높은 훈련으로 12명 선수들의 얼굴은 반쪽이다. 그러나 눈빛만은 집념에 타오르고 있다. 지략과 집념으로뭉친 우승제조자 宋世榮씨나 李稔코치의 트레이닝복도 땀이마를 겨를이 없다. 〔奎〕

旅館서 처녀被殺

브러지어로 목졸려…同宿남자 手配

서울龍頭洞

11일상오9시50분께 서울東大門區龍頭洞223의19 평화여관(주인 오기환·53) 107호실에서 김춘향(25·江東區千戶洞애광맥주집종업원)이 알몸에 브러지어끈으로 목이졸려 숨져있는것을 여관주인 오씨의 부인朴順慶씨(45)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朴씨에의하면 숨진 金양은 이날 새벽1시께 40세가량의 남자와함께 들어와 숙박계에 『김휘택, 경기城南市太平洞1691의81』로 기재한뒤 방값5천원을 내고 투숙했는데 이날아침 청소하기위해 들어가보니 여자만 숨진채 이불에 덮혀있었다는것. 함께 투숙했던 남자는 이날상오 6시50분께 열어놓은현관문을 통해 달아난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품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으로 보고 여자와함께 투숙했던 1백70cm가량의 키에 서울말씨, 머리가길고 상·하의 밤색바지와 남방셔츠를 입은 40세가량의 남자범인을 수배했다.

內緣의 妻찔러 重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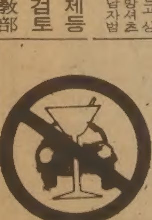
外泊不貞 추궁끝에

【錦城=聯】 전남咸平경찰서는 11일 동거중인 여인이 부정한짓을했다고 과도로 찔러 중상을입힌 金正喜씨(30·咸平郡 大洞面鄉校里1015)를 살인미수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金씨는 지난 7일 낮12시30분께 내연의처 洪明和씨(30)가 외박을 하고 돌아오자 부정한짓을 했다면서 洪씨의 가슴을 길이 10cm의 과도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는것.

夜間部신설 억제등 學園폭력問題 검토

文敎部



문교부는 학원폭력등 문제를 일으키고있는 고등학교 야간부의 운영개선책을 마련 ▲시설이 갖춰진 고등학교에대해서는 현재의 야간부를 주간으로 통합시키는 한편 ▲각종 교내행사는 주간부와함께 실시하라고 각시·도교위에 지시했다.

주간女性

流星의 賦 <181>

李炳注作 李友範畵

明暗 ①

여심(女心)이란 안타까운 것이다. 홍계남은 뼈저리게 이 사실을 알았다.

다시 고향을 떠나는 날의 새벽, 계남은 이숙랑(李淑娘)의 얘기를 어머니 앞에 털어 놓았다.

어머니는 자초지종을 조용히 듣고 있더니 한숨을 섞으며 말했다.

『가련한 규수로구나. 잘 보살펴 주어라. 그러나 정혼(定婚)하진 말아라. 정혼을 하려면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죄송하옵니다, 어머니. 그럼 이 사실은 어머니께서만 알아 두소서. 내 형편에 어디 장가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세상 지나는 것으로 될지 모르잖습니까.』

했을 때 계남은 목이 메었다.

어머니는 씻어서 다듬어 놓은 겨울옷을 보따리에 싸고,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들려 계남을 뒷문으로 전송했다. 철주한씨는 일손이 모자란다며 계남을 보낼생각을 안하고 있었던 터라 선불리 인사를 했다간 무슨 화를 자초할지몰라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처지였던 것이다.

계남의 걸음은 빨랐다. 안성에서 서울까지는 백리길인데 새벽에 집을 나선 계남이 서울에 도착했을땐 아직 해가 남아 있었다.

계남은 일단 회현동 하석의 집에 들렀다. 모두들 고향으로 떠나고 하석만이 서울집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석으로부터 계남은 서울을 비우고 있을 무렵 서울에서 있었던 대소사(大小事)를 설명들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

교하(交河)에 방천을 만들어 토지를 제것으로 하려다가 황유경과 파사원 사이에 크게 송사가 벌어졌다. 송사의 불씨는 황유경의 종인 거인(居仁)이 파사원이 관청에 제출한 문서에 위조인장(僞造印章)이 찍혀 있었다고 발설한데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크게 문제가 된것은 파사원은 송한필(宋翰弼)의 사돈이고, 송한필은 이이(李珥)와 가까왔기 때문에 이이가 극력 파사원을 돌봐주어 송사를 맡은 관원(官員)이 마음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한성판윤으로 있던 임열(任說)이 완의석(完議席=삼사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땐 만장일치로 되어야 하는데, 그 모임을 말한다)에서

『한때의 공론(公論)을 잡는자가 모두 파사원을 옹호하니 따르지 않을수 없었다』고 말하고

『공론을 가진 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조판서(吏曹判書)이다』하고 답했다. 그러자 서윤 김행(庶尹·金行)이

『이조판서가 판윤을 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찌 한성부를 지휘할수 있었겠는가』

하고 반발했다.

결국 파사원과 그 아들 전, 그리고 전의 장인인 송한필이 형장(刑杖)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송한필에게 사감이 있던 안당(安塘)의 아들 안정란이 송한필과 송익필 형제는 우리집 종이라고 고소하여 승소판결(勝訴判決)을 받았다. 판결을 받자 안정란은 송한필의 아버지인 송사련(宋祀連)의 무덤을 파서 시체에다 도끼질을 했다.

모눈종이위의生 <199>

趙善作 禹慶熙畵

灰色노우트 ㉛

『아, 이런 제길헐. 우는 부정한 여행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신데, 가보면 알거요.』

딱하다는 표정으로 말하고 나서 유감독은 전화기의 송수화기를 들어 교환에게 전화번호 하나를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저 친구한테 비밀로 하자는건 별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일 아침 서울역에서 딱 마주치면 재미 있을거 아뇨?』하고, 나로서는 완전히 납득할수 없는 이유를 둘러댔다. 그렇다면 혹시 유감독이 나와 그 사이의 꿈은 사정을 알고 있는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하나의 유희로써 나를 그를 사이에 동반시키려는게 아닌가 하고 내가 의심하는 사이 전화기의 신호음이 들렸고, 그가 다시 송수화기를 들었다.

『아, 빙모님이십니까? 밤새 기체후 일향만강하옵시고?』

하고 그는 잠님이 분명한 말씨로 입을 열었다. 그런다음 그는 잠시 킬킬거리며 웃고나서 『시간은 아홉시 맞죠?』『여덟시반?』『그럴지. 그럴지. 그런데 말입니다. 표한장을 더 부탁해야겠는데…』

『한사람 더 가게 돼서요. 한선생 제잔데…』『무시기 말씀이노 그리 하소이까? 빙모님께서 아시다시피 한선생이나 나나 용모단정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핫핫핫. 그만둡시다』『네 네, 부탁합니다』 하고, 오랫동안 통화를 계속하고나서 나를 돌아보았다.

『아홉시 특급이니까 여덟시반까지는 나와야 된다는데』

그는 수첩을 꺼내면서 내게 연락처를 물었다. 나는병원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고 그는 그것을 수첩에 적었다.

『왜 저를 한사코 데려가려고그러셔요? 수상해요.』

마음 속으로는 이미 부산행에 동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내가 물었다.

『수상하다니?』

『혹시 밥 먹으러 가신 분하고 무슨 음모를 꾸미시는게 아닌가 싶어요.』

『음모? 제기헐, 우리도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음모는 무슨 음모요. 이렇게 멍치가 커다란 사내가 그래, 미스 안같은 연약한 여자나 사기쳐 먹게됐소?』

유장훈 감독은 말끝에 짐짓 화를 돋우었다. 그러나 일부러 돋운 듯한 노기 속에서도 그는 내 버릇없었던 말투에 대한 힐책을 교묘하게 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따라 잠자코 방을 나왔다.

거리에 나와서 나는 사죄하는 듯한 표정으로 유감독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전 그만 가보겠어요.』

『왜요? 어디가서 점심이나 함께 하지.』

그는 좀전의 상한기분 같은것은 벌써 잊었는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나는 안도의 느낌으로 말했다.

『볼일이 많아요. 또 내일 부산가려면 준비도 해야잖아요?』

『꼭 갈거지? 표까지 부탁해 놓았으니까 안가면 안돼. 여덟시반까지 서울역. 꼭 나올거죠?』

그가 다짐한듯 말했고, 나는 머리를 한번 까딱해 보였다.

「대신…」 하고, 나는 말하려다말고 입을 다물었다. 내일아침 서울역에서 만날때까지 그에게 비밀로 하자는 제의를 이번에는 오히려 내쪽에서 다짐해두고 싶었던 것이다.

『대신 뭐요?』

『아녜요. 내일 아침까지 그분한테는 정말 비밀로 하실거예요?』

『말해줄까? 어때요? 미스 안이 희망하는대로 합시다.』

잠시 생각하다가 내가 말했다.

『아무래도 내일아침 서울역에서 놀래켜 드리는 편이 낫겠어요. 하지만 맘대로 하세요.』

유장훈감독과 나는 골목을 나와 헤어졌다.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한 국 관

냉면·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 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TORONTO

536-0290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객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 MEADOWGLEN PLACE # 202A,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439-1330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우황청심환 ●우황 ●사향

●웅담 ●녹용 ●정주사 ●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 (416) 977-9818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